

# 나라잃은시기 아동잡지로 본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

박 태 일\*\*

## 차 례

- |                      |                       |
|----------------------|-----------------------|
| I. 들머리               | IV. 『별나라』의 매체 투쟁과 응집력 |
| II. 『어린이』와 제도적 기반    | 1. 중층적 소년 조직의 열의      |
| 1. 향유층의 진폭과 연속성      | 2. 지역적·이념적 배타성과 연고문학  |
| 2. 지역 중심작가의 성장과 정착   | V. 『아이생활』과 종교경계       |
| III. 『신소년』의 지역 문화자본력 | 1. 향유 기반의 열세          |
| 1. 소년 활동의 밀도와 편재성    | 2. 진입 장벽과 점적 진퇴의 문제   |
| 2. 다양한 진퇴와 지역연대      | VI. 마무리               |

## I. 들머리

『1920년대 아동문학집』(1)은 1993년 ‘현대조선문학선집’ 가운데 하나로 북한에서 나왔다. 경남 거창 출신 월북시인 김상훈의 아내 류희정이 펴냈다. 당대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2-072-AS1511)

\*\* 경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현대조선문학선집’ 18권으로 나왔다. 평양예술종합출판사에서 냈다.

북한학계에서 본 우리 근대 아동시에 대한 생각을 잘 간직하고 있는 책이다. 방정환·윤극영을 비롯해 거기에 이름과 작품을 올리고 있는 정지용·윤석중·박세영·윤복진·이원수·권환은 우리에게도 낯익은 이들이다. 그런데 김병호와 정상규에 이르면 사정이 달라진다. 남쪽 문학사에서 낯선 문인인 까닭이다. 거기다 책 뒤쪽에는 비슷한 경우에 드는 한 무리 시인이 더 있다. 그 가운데서 최순에는 이원수의 아내니 그렇다 쳐도, 리성홍·정기주·강순도·정태이는 전혀 알 수 없을 이다. 그러나 그들 또한 명망가 아동문학인과 나란히 한 편 또는 두 편씩 작품을 올리며 ‘조선 근대 아동문학의 력사’를 당당히 채우고 있다.

그런데 그 리성홍, 곧 이성홍이 향과 이주홍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아는 문학연구가는 거의 없다. 1920년대 중반부터 『어린이』·『신소년』·『별나라』와 같은 아동잡지를 빌려 활발하게 활동했던 경남 합천의 아동문학인이다. 형인 이주홍보다 앞서, 더 오래도록 작품 투고를 하며 소년활동가로 자랐다. ‘달빛사’를 만들고 문예지 『달빛』을 두 차례나 낸 바 있다.<sup>2)</sup> 이주홍이 등단할 무렵인 1928년에는 형과 같은 형식을 갖추기도 했다. 정상규 또한 진주에서 ‘새힘사’라는 소년 문예조직을 만들어 일했던 소년활동가다. 두 사람 모두 1920-1930년대에 지역 안팎에서 매체 발간·투고를 빌려 남다른 문학 활동을 펼쳤다.<sup>3)</sup>

이렇듯 지역에 터를 두고 자라났던 투고문인과 그 무대였던 신문·잡지 매체가말로 아동문학을 당당한 근대문학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다한 요소다. 한국 근대 문학사회 안쪽에 아동문학을 내면화시킨 결정적인 기제가 그들이었다. 실상 문학의 구체적 실천과 내면화의 중심 장이며, 평균적 문학 담당층은 명망가 문인이 아니다. 투고문인은 이제까지 확립된 국가주의 입장에서는 다루어질 기회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근대 아동문학을 지역 차원에서 다루는 일은 이들과 같이 잊혀진 문학에 대한 관심과 그것의 복원을 빌려 겨레 아동문학의 부름겨와 값어치에 대한 새로운 성찰의 기회를 갖는 것이다.

2) 승효탄, 『조선소년문예단체소장사고』, 『신소년』 9월호(신소년사, 1932).

3) 나머지 합천 정기주·동래 강순도·진주 정태이 또한 전문 문인으로 나서지는 못했지만, 활발하게 경남의 투고시단을 이루었던 청소년문사였다.

이 글은 한국 근대 아동문학의 제도화에 결정적인 아버지를 다한 1920-1930년대 아동잡지를 대상으로 삼는다. 그들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경남·부산 지역 문학 관련 1차 문헌 사항들을 죄 갈무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 대한 유의미한 맥락을 찾아보고자 하는 목표 아래 쓰여진다. 대상에 올린 매체는 『어린이』·『신소년』·『별나라』·『아이생활』이다. 이 넷은 1919년 기미만세의거 이후 드높아갔던 민족 결집과 낙관적인 전망에 힘입어 1923년부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나왔다. 그리고 거의 10년 가까이 또는 더 오래도록 꾸준했던 대표적인 아동 전문지<sup>4)</sup>라는 공통점이 있다.

아동문학의 물결은 또한 1926년 『별나라』지의 창간을 전후해서 점차 다양성을 획득하기 시작했다. 즉 1926년을 넘어서면서부터 정치, 문화계의 전반적 현상으로 나타났던 좌우익의 사상적 대립이 드디어 아동문학계까지 과급되어, 이 시기부터 동요문학도 『어린이』지와 『아이생활』지, 『별나라』지를 중심으로 민족주의적 계열, 종교주의적 계열, 계급주의적 계열로 뚜렷한 이념적 정립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다.<sup>5)</sup>

비록 동요를 중심으로 이끌어낸 생각이지만 『어린이』와 『아이생활』 그리고 『별나라』가 서로 “민족주의적 계열, 종교주의적 계열, 계급주의적 계열로 뚜렷한 이념적 정립을” 보여주었는가라는 점에 대한 단정은 힘들다. 무엇보다 아직까지 그들에 대한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 까닭이다. 게다가 『신소년』까지 넣으면 사정은 다시 복잡해진다. 따라서 이들의 실재를 갈무리하는 것이 가

4) 흔히 1910년대에 나온 『소년 한반도』나 『소년』을 한국 아동지 발간 맨 앞에 둔다. 그런데 『소년 한반도』는 아동지라기보다 나라를 빼앗기고 새롭게 ‘소년’기를 맞이하고 있는 조선 민족에 대한 일반 계몽지 성격을 띄고 있다. 최남선이 맡아낸 『소년』 또한 엄밀한 뜻에서 아동잡지라기보다는 최남선 이끈 아동 계몽지 성격을 벗어나지 않는다. 출판주체와 독자 사이에 교호작용이 없을 뿐더러, 글쓴이 또한 문학사회를 이룰 만한 자질을 지니지 못하고 육당이 홀로 독주한 경우다. 따라서 그 역할을 충분히 인정한다 하더라도, 근대 아동문학의 제도화 매체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1925년에 창간하여 1933년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진 『새벗』은 실물을 찾을 수 없어 아쉽게 논외로 한다. 조선일보사에서 낸 『소년』은 『동화』와 함께 1930년대 후반기 대표 아동매체다. 1920년대 매체가 아니어서 논의 대상에서 뺐다.

5) 이재철, 『한국 현대동시약사 소고』, 『학술논총』 2집(단국대학교 대학원, 1977), 26쪽.

장 앞선 문제다.<sup>6)</sup> 그러나 그 또한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마냥 내버려 둘 수도 없다. 어렵사리 현재까지 갈무리한 대상을 중심으로나마 경남·부산 아동문학의 실질에 다가서고자 하는 목표에 이르기 위한 걸음을 재촉한다.<sup>7)</sup>

글쓴이가 이 글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는 자리는 대상 매체 속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제도화 장치다. 곧 경남·부산 곳곳에 마련되었던 지분사(支分社)의 동향, 소년 조직활동 양상, 그리고 독자문단·현상응모의 투고율이나 빈도, 문인의 드나듦과 같은 요인이다. 그것을 대상 매체별로 첫째 향유층과 조직활동, 둘째 작가와 작품으로 크게 묶어가며 연구 목표에 다가서고자 한다. 따라서 작품 해명은 매체나 계재문인의 동향을 이해하는 일에만 부분적으로 끝어다 쓴다. 개인 작가, 작품의 내용 분석은 뒷날로 미루었다. 이 글로 말미암아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두터운 전통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관심이 비롯되기를 바란다.

## II. 『어린이』와 제도적 기반

『어린이』는 한국 근대 아동문학의 보고로서 일찌감치 이름이 알려져 온 매체다. 그러나 그 무렵 다른 매체와 마찬가지로 『어린이』 또한 제대로 된 해명

- 
- 6) 일찌감치 영인본이 마련되어 널리 알려진 『어린이』를 제쳐둔 나머지 세 매체는 이제까지 그 이름 정도만 알려진 경우였다. 최근 들어 매체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연구의 물길을 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포함한 나라잃은시기 우리 아동문학 매체에 대한 갈문리는 아직까지 태부족이다.
- 7) 나라잃은시기로 묶어놓고 보면 확보된 연구 대상은 아래와 같다. 『어린이』(개벽사) 1923년 3월 창간호부터 1934년 2월호까지 122권 가운데서 87권(보성사 영인본, 1977), 『신소년』(신소년사) 1923년 10월 창간호부터 1934년 4·5월합호까지 125권 가운데서 76권, 『별나라』(별나라사) 1926년 6월 창간호부터 1935년 1·2월합호까지 80호 가운데서 43권, 『아이생활』(아이생활사) 1926년 3월 창간호부터 1944년 4월호까지 218호 가운데서 138권이다. 많은 모자람이 있으나, 큰 틀을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으리라 본다. 남은 1차 문헌들이 덧붙여지는 대로 거듭 논지를 기워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이 글 내내 연구 대상인 네 매체 각각의 해당 본문 각주에서, 작품이나 사항 계재 사실을 밝히기 위해 1차 문헌의 출처를 복수로 밝힐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잡지 이름과 발행처는 줄이고 발간 연도와 호수만 적도록 한다.

에 이르고 있지는 않다. 가장 이즈음에 쓰여진 한국문학사전이 그 점을 잘 보여준다.

어린이 잡지 1920년대의 월간 아동잡지. 1923년 3월 방정환 주재로 개벽사에서 발행하였다. 이정호, 신형철, 최영주, 윤석중, 고한승 등이 주간을 역임하였다. 1934년<sup>8)</sup> 2월 중간하였다.<sup>9)</sup>

소략하기 그지없다. 여러 대표작품 해설에다 연구 문헌까지 친절하게 죽 늘여놓은 1960·1970년대 작가의 항목 기술과 견주어보아도 홀대 정도는 쉬 짐작이 간다. 그러나 『어린이』를 펼치면 발간 초기부터 정인섭·손진태·신고송·서덕출·이원수와 같이 경남·부산지역을 넘어서서 지명도 드높은 이들이 한결같이 이름을 오내린다. 그리고 그들 곁에서 또는 뒤에서 경남·부산의 소년회 모임과 낯선 소년문사들 이름이 『어린이』~지면 이곳저곳을 꾸준히 채우고 있다.

### 1. 향유층의 진폭과 연속성

『어린이』를 중심으로 활동한 경남·부산 지역문인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른바 기성문인과 소년문사다. 기성문인은 1923년 『어린이』가 발간될 초기 이미 전문 문학인으로 작품 활동에 나선 이다. 그들은 매체의 목차에서부터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있다. 『어린이』의 주요 고정 필자로서 톱툼이 역사·우화·동화극·동요 작품을 올리고 있는 동래 손진태와 울산 정인섭이 대표되는 사람이다. 이 둘은 이미 청소년의 몸으로 기미만세의거를 겪은 일본 유학생 출신<sup>10)</sup>이다. 그리고 색동회 회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들이 경남·부산 지역문학 안쪽과 수직·수평적으로 연관된 활동을 찾기란 쉽지 않다. 『어린이』를 이끈 방정환과 뜻을 같이 하는 색동회의 젊은 엘리트 문필가로서 독립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따름이다. 이 둘과 함께 부산 김소운과 마산 이은상도 『어린이』~필진으로 활동한다.<sup>11)</sup> 이은상 경우는

8) 원문에서는 1931년으로 잘못 쓰여져 있다.

9) 권영민, 『한국현대문학대사전』(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538쪽.

10) 손진태가 1900년생, 정인섭이 1905년생이다. 둘 다 조도전대학에서 수학했다.

마산의 대표적인 모임인 ‘신화소년회’와 어느 정도의 연관 활동을 짐작하게 하나, 김소운은 지역 연계가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어린이』에 글을 올리고 있는 경남·부산의 기성문인들은 지역적 기반과 거리를 두고 있었던 셈이다.

이들과 달리 『어린이』의 중심 향유층은 이른바 소년문사라 불릴 수 있을 이다. 그들은 지역의 공립보통학교나 각종 소년회 조직을 기반으로 두고 활동을 벌였다. 1920-1930년대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은 바로 이러한 소년문사의 조직과 두고 활동, 그리고 그들의 향유를 빌려 굳건하게 자리를 다지게 된 셈이다. 특히 『어린이』가 터를 두고 있는 천도교소년회는 전국적으로 방대한 조직을 가졌다. 그러나 『어린이』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경남·부산지역 천도교 소년회는 뜻밖에 드물다. ‘천도교 통영소년회’와 ‘천도교 진주소년회’<sup>12)</sup>가 모습을 내보이고 있을 따름이다. 하지만 평칭을 쓰고 있는 여러 소년회의 뿌리 다수는 천도교소년회였을 것으로 보인다.

종교적 경계가 얇은 일반 소년회 조직활동도 지속적으로 드러난다. 기독교와 불교소년단도 예외 없이 『어린이』의 향유층을 이루고 있다.<sup>13)</sup> 『어린이』는 지역 차원에서 볼 때 천도교 소년계몽 매체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범어린이로서 고루 받아들여졌음을 짐작하게 한다. 경남·부산지역은 일찌감치 그 활동이 매우 활발했던 지역으로 꼽힌다.<sup>14)</sup> 따라서 일반 소년회 활동은 『어린이』~축 여러 곳에서 눈에 뜨인다. 그 가운데서 진해시 가덕도의 활동과 울산시의 활동이 두드러진다.<sup>15)</sup> 마산 ‘신화소년회’ 또한 뒤지지 않는 곳이었

11) 1933년 1월호 김소운과 이은상이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짧은 ‘연하장’이 좋은 본보기다. 그리고 같은 호에 김소운은 ‘童心小話’ 『씨동무』(30-31쪽)를 실고 있다.

12) 『각지방의 소년회 소식』, 『어린이』, 1923, 1권 4호, 7쪽.

13) 천도교를 제쳐두고 보면, ‘마산읍내 불교소년당’, ‘부산3·1기독교청년회’, ‘언양불교소년단’과 같은 모임이 눈에 뜨인다.

14) 김정희의 조사에 따르면 1920년대 각도별 소년단체 비율을 보면 서울(119단체), 경기(127단체)에 이어 경남은 50단체로서 세 번째에 자리한다. 나머지 도는 30단체 미만이다.

김정희, 『한국소년운동사』(민족문화사, 1992), 148-155쪽.

15) 이름을 죄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창녕소년회’, ‘가덕도소년회’, ‘가덕진소년회’, 울산군 ‘언양소년회’, ‘언양소년단’, ‘통영소년회’, ‘천성소년회’, 마산 ‘신화소년회’, ‘농소소년회’, ‘언양소년소녀회’, ‘합천소년회’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들을 비롯한

다.<sup>16)</sup>

『어린이』~족에 나타난 경남·부산지역 소년문사들의 활동을 엿볼 수 있는 다른 한 고리는 달마다 빠짐없이 마련되곤 했던 ‘현상문제당선발표’ 속의 지역 별 명단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어린이』~구독자의 모습을 유사하게 반영한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들 분포야말로 개별 소지역 활동의 강도와 열의를 그대로 짐작케 한다. 1923년 3월 창간에서부터 1926년 2월까지 『어린이』~탈간 초기 세 해를 놓고 볼 때, 마산이 16회로 가장 잦고 부산·동래가 15회, 진주가 13회, 그리고 울산·언양이 13회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또한 김해·창녕·창원의 9회와 하동 7회, 함안 4회가 그 뒤를 따르고, 나머지 통영·밀양·사천·진해·거창·함양·의령이 1-3회의 빈도를 보여준다.

이로 미루어 현상응모 투고자의 지역 분포는 소년회 활동을 싸안으면서 경남·부산지역 전역에 고른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그 가운데서 마산·언양지역 독자들의 투고는 소지역 소년회 활동의 높은 열의와 맞물린다. 합천지역의 참여가 낮은 것이 이채롭다. 이 점은 뒤이어 나온 『신소년』에 대한 활발한 참여와 맞서면서, 매체별 특이성을 가늠케 한다. 경남·부산지역 『어린이』~조직 활동의 분포와 빈도는 다른 지역에 견주어 활발했다고 쉬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역내 소지역에서는 고른 분포를 보였던 셈이다. 1920년대의 가장 앞자리에 나서 있었던 매체로서 『어린이』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

경남·부산지역 소년회의 설립과 변화 과정에 대한 통시적 추이를 살필 만한 정보는 아직 나오지 않는다. 보는 바와 같이 진해 가덕도의 경우 ‘가덕도소년회’와 ‘가덕진소년회’, 그리고 ‘천성소년회’로 셋이다. 언양의 경우는 ‘언양소년회’와 ‘언양소년단’, 그리고 ‘언양소년소녀연합회’에다 ‘언양불교소년단’까지 활동하고 있었다.

방정환, 『언양의 조교회』, 『어린이』, 1925. 9, 22-27쪽.

- 16) 1925년 5월 방정환이 남쪽으로 소년소녀대회를 열기 위하여 내려왔을 때, 마산에서는 ‘신화소년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응대와 참여를 보여주었다. ‘신화소년회’는 기록에 따르면 바로 방정환의 방문을 앞두고 조직 창설에 가속도가 붙었던 것으로 보인다. “방정환 선생이 2월 23일 밤 마산에 내려와서 이은상 선생님과 소년회 대표 몇분이 나와서 맞이”하였다. 이어서 “로동학교로 가 이약이”한 뒤, “이튿날은 다른 곳에서 더 많은 관객에게” 섰다. 이원수도 몸담았던 모임이다. 『각지의 소년소녀대회』(나그네잡지), 『어린이』, 1925. 5, 31쪽.

『어린이』는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형성과 전개에 있어서 꾸준하게 아동문학에 대한 자의식을 가다듬고 단련시켜 주었다. 여러 유파나 다양한 입장의 문인들이 오래도록 고르게 드나들면서 자신의 문학적 기반을 닦은 데서 그 점을 잘 알 수 있다. 최고 전성기 때인 1928년 무렵, 판매부수가 3만에까지 이르렀던 『어린이』는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밑자리를 든든하게 마련해준 기간 매체였다. 이미 청년으로 자라난 직업적 소년활동가 계층과 새로운 소년문사 사이의 상하 조화로운 세대연결까지 짐작해 보는 까닭이다.

## 2. 지역 중심작가의 성장과 정착

『어린이』의 ‘독자입상작품’란이나 ‘독자담화실’에 대한 투고·게재는 아동문학을 아동문학답게 만들어가는 데 주요한 촉매제였다. 투고자의 주위 환경으로부터 자신이 글 쓰는 이로 승인 받게 되는 첫 인정 기제다. 그것이 타자화된 고민과 자의식을 거듭 가꾸어줌으로써 스스로 작가로서 자라는 것이다. 1920년 후반부터 뚜렷하게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여 1930년대 초기의 젊은 주류층을 이루었던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인의 많은 수가 『어린이』의 투고 경험을 빌려 습작을 거듭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뜻밖이 아닌 셈이다.

대표되는 이가 신고송·서덕출·이원수·소용수다. 신고송은 열일곱 살 무렵인 1924년 2월부터 『어린이』에 활발하게 얼굴을 내밀기 시작하였다.<sup>17)</sup> 그리하여 1927년 『별나라』에 동요가 당선되어 기성으로 나설 무렵에는 『어린이』에서도 기성대우를 받고 있다.<sup>18)</sup> 그 뒤부터 1930년대까지 신고송은 『어린이』의 주요 필진으로 성장한다. 서덕출 또한 1924년 7월부터 작품 투고 사실이 드러난다. 『어린이』~말간 초기 세 해 사이에 모두 열세 차례<sup>19)</sup>나 『어린이』에 이름

17) (독자담화실) 언양소년단 신고송, 1924. 2, 34쪽; 『소년소녀작품』으로 『밧브든 일주간』, 1924. 5, 28쪽; (독자담화실) 1924. 11, 47쪽; (제10회현상당선발표) 1924. 12, 43쪽; (선외가작) 1925. 4, 44쪽; 대구 신고송 (입선동요) 『우테통』, 1925. 11, 58쪽.

18) 신고송, (설날에 할 동화극) 『피바른 특기』, 『어린이』, 1927. 2, 39-41쪽.

19) 복산동 서덕출, 1924. 7, 42쪽; 『봄편지』, 1925. 4, 34쪽; (입선동요) 울산 서덕출 씨의 『노고지리』외 1편, 1925. 7, 37쪽; (동요 선외가작) 1925. 9, 59쪽; (입선동요) 1925. 9, 64쪽; (독자담화실) 1925. 9, 68쪽; (독자담화실) 1925. 10, 69쪽; (제



을 올려 가장 활발한 게재율을 보인다. 그의 대표작 『봄편지』가 입선동요로 세상에 선뎠을 때는 1925년이였다.

런못가에 새로 핀  
 버들넙을 짜서요  
 우표 한장 붙쳐서  
 강남으로 보내면  
 작년에 간 제비가  
 푸른 편지 보고요  
 댁선 봄이 그리워  
 다시 차저 옵니다.  
 - 서덕출, 『봄편지』<sup>20)</sup>

이 『봄편지』가 윤극영의 악보와 함께 책 맨 앞에 실려 기성 대접을 받았던 자리는 이원수의 『고향의 봄』이 실린 같은 지면이였다. 그러나 그 뒤에도 서덕출은 독자담화실이나 입선작품란에 꾸준히 작품이 실리거나 선외가작으로 여러 차례 이름을 올리고 있다. 투고문사와 기성문인 사이의 경계나 자의식이 문인 스스로에게나 매체 편집진에게나 뚜렷하지 않았던 까닭이다.

이원수 또한 비슷한 궤적을 밟고 있다. 1925년 9월호에 처음 얼굴을 내민 뒤에 『기력이편지』를 거쳐 1926년 4월에 『고향의 봄』이 독자투고에 당선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sup>21)</sup> 하지만 그 뒤에도 꾸준한 작품 투고와 게재는 이어졌다.<sup>22)</sup> 이원수가 기성문인으로서 편집상 대접을 받게 되는 처음은 마산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마산공립상업학교에 입학한 1928년 5·6월합호에서다.<sup>23)</sup> 그

30회현상당선발표) 1925. 10, 71쪽;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됩니다』(독자 사진), 1925. 11, 17쪽; (작문 선외가작) 1925. 12, 63); (작문 선외가작) 1926. 2, 57쪽; (독자담화실) 1926. 2, 60쪽; (독자담화실) 1926. 2, 63쪽.

20) 『어린이』, 1925. 4, 34쪽.

21) (동요 선외가작) 『짜치』, 1925. 9, 64쪽; (산문 선외가작) 『기력이편지』, 1925. 11, 27쪽.

22) (7월현상당선발표) 1926. 9; (독자 동요란) 『가을밤』, 1926. 10, 61쪽; (입선동요) 『첫달금음밤』, 1927. 1, 61쪽; (선외가작) 『겨울밤』, 1927. 1, 61쪽; (입선동요) 『비누풍선』, 1927. 7, 57-58쪽.

23) 동화 『어옛븐 금방울』은 책 앞쪽 목차에서부터 기성으로서 대접 받아 이원수의 이름을 올리고 있다.

러나 이원수는 현상문제 응모와 독자담화실을 이용한 투고 활동을 그치지 않았다.

진주의 소용수도 꾸준히 『어린이』~계재를 빌려 문인으로 자라난 경우다. 1923년 11월호부터 투고를 시작하여 『어린이』~초기 세 해 동안에 모두 아홉 차례<sup>24)</sup>나 이름을 올렸다. 밀양의 박석정도 일찌감치 15세인 1924년 11월부터 투고<sup>25)</sup>를 시작하였다. 광복 뒤 지역 언론인으로 자란 고성 김형두<sup>26)</sup> 또한 1925년 6월부터 투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이 기성으로 자라고 있었던 시기, 그들보다 뒤늦게 투고문단에 발을 들이민 경남·부산지역 소년문사가 함께 자라고 있었다.<sup>27)</sup> 1927년 10월부터 이름을 올리고 있는 진주의 손길상이 그 대표되는 이다.

『어린이』의 발간 초기부터 투고를 거듭하여 소년문사로 활동하였던 이들이 마침내 기성으로 대접을 받고 있음을 널리 알린 계기는 1930년 8권 5호 ‘옛동무작품호’부터다. 열아홉 살의 마산 이원수에서부터 불온교사로서 대구에서 청도로 쫓겨 가 있었던 신고송, 그리고 진주고보 학생이었던 소용수, 스물세 살의 울산 서덕출이 한 자리에 모였다.<sup>28)</sup> 이후 이들은 『어린이』의 독자담화실에서

24) (독자담화실) 1923. 11, 42쪽; (백오명대현상당선발표) 1924. 11; (동요 선외가작) 『어린이』, 1925. 3, 23쪽; (입선동요) 1925. 4, 35쪽; (휴게실) 1925. 5, 45쪽;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됩시다』(독자 사진) 1925. 5, 45쪽; 『우리 식골 사투리』, 1925. 7, 26쪽; (독자담화실) 1925. 7, 46쪽; 『늘 보고 싶은 어린이기자 인물상상기』, 1925. 11, 35쪽.

25) (백오명현상당선발표) 1924. 11;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됩시다』(사진계재), 1925. 11; (독자 담화실) 1926. 2, 61쪽.

서덕출과 나란히 독자사진으로 실린 때는 박석정 나이 15세였다. 『어린이』에 많은 발표가 없었음에도 이미 밀양소년회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까닭이겠다. 박석정은 그러한 열성을 바탕으로 1927년에 출범한 조선소년총연맹의 중앙집행위원으로 이름을 올린다. 그리고 그 하루 조직인 경남도소년연맹의 설비교섭과 중앙집행위원장을 맡았다.

김정의, 『한국소년운동사』(민족문화사, 1992), 199-207쪽.

26) 김형두, (쌀쌀笑學校) 『八독갓흔 동무』, 『어린이』, 1925. 6, 22쪽.

27) 우신출과 함께 광복기 부산에서 좌파미술을 이끌었던 경남·부산의 대표적인 서양화가 양달석도 이른 시기에 『어린이』를 통해 예술감각을 키웠음을 『어린이』는 보여준다.

(10월현상대당선) 1924. 11; (동요당선) 1925. 4.

28) (전설) 마산 이원수(연령 19세 현직 학생), 『방울 꽃 이야기』, 12쪽; (동시) 유천

이름을 볼 수 없다. 그 몇 달 앞선 1929년 7·8합호에는 이성홍이 『어린이』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다. 이때 그는 열여섯 살의 ‘합천소년회’ 단원이었다. 처음부터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됩시다』라는 표지로 마련된 주요 독자 사진란에 얼굴을 내밀 정도였다. 이미 1924년 무렵부터 다른 매체인 『신소년』을 빌려 누구보다 활발한 투고와 조직활동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던 그로서는 늦은 등장이었던 셈이다.

이들과 나란히 193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어린이』를 빌지 않고 다른 매체를 통해 활발하게 자라고 있었던 경남·부산지역의 청년문사들이 기성 자격으로 『어린이』의 지면을 매우기 시작한다. 이미 『별나라』와 『신소년』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벌였던 카프작가 엄홍섭이 한 차례 얼굴을 비친 때도 그 무렵이다. 뒤이어 좌파문인으로서 기세를 드높이기 시작했던 강로향 또한 1931년 두 차례에 걸쳐 작품을 올린다. 김대봉도 한 차례 글을 올리고 있다.<sup>29)</sup> 이러한 좌파 지역문인의 작품 게재는 『어린이』의 성격 변모와 무관하지 않은 일이다. 1931년 7월호 방정환선생 추도호를 앞뒤로 한 시기 『어린이』도 당대 문학사회의 갈등이 내연하고 있는 듯한 변모를 보여준다.<sup>30)</sup>

겉표지 그림에서부터 앞선 시기와 달리 투쟁적인 시대 상황이나 아이들의 고통스런 현실에 대한 기록을 보여준다. 게다가 1932년의 『노농아동세계대회 이야기』나 1932년 6월호의 ‘소년생활전선특집호’와 같은 기획은 그 무렵 『어린이』가 고심했던 방향을 잘 드러낸다.<sup>31)</sup> 이원수의 『벌소제-비오는 날의 레포

신고송, 『언니 식집 가든 날』, 22쪽; (동요) 진주 소용수(연령 23세 현직 학생), 『봄바다』, 45쪽; (전설) 울산 서덕출(연령 23세 현직 동요연구), 『물오리의 내력』, 32-33쪽; (동요) 마산 이원수, 『그림자』·『그네』, 43쪽.

29) 엄홍섭, 『(동요) 진달래』, 1930. 4·5합호; 강로향, (소년수필) 『북국에 봄이 오면』, 1931. 2, 60-61쪽; (소년소설) 『영길이』, 1931. 12. 74-79쪽; 김대봉, (동시) 『아버지 손을 보고』, 1932. 6, 36-37쪽.

30) 1931년 7월 방정환 사후 『어린이』는 이정호·신영철이 편집과 경영을 맡았고, 윤석중·최영주도 편집에 관여하여 1934년 정간 때까지 일했다. 이재철은 이 시기를 『어린이』 편화 과정 가운데서 제4기로 넣고 있다.

이재철, 『아동잡지 어린이연구』, 『신인간』(신인간사, 1986), 57-59쪽.

천도교청년회중앙본부, 『천도교청년회80년사』(글나무, 2000), 242-243쪽.

31) 이 시기 『어린이』의 노선에 대한 변화와 고심의 흔적은 『독자담화실』에서 암시 받을 수 있다. “조선내에 우리가 밋을 만한 소년잡지 몇종 이름과 주소”를 알려

1』<sup>32)</sup>와 같은 현실성 짙은 작품 게재는 그 연장선에 놓인다. 그러나 1932년 후반기부터 1934년 정간에 이르기까지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인들의 모습은 『어린이』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이미 『신소년』·『별나라』와 이념적 경계가 뚜렷해졌을 뿐만 아니라, 편집인 윤석중의 취향 또한 그 못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대신 1930년대 새로운 투고 세대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장차 주요한 연극인으로 자라날 통영의 허남기<sup>33)</sup>와 민속학자로서 성장해 갈 동래의 최상수<sup>34)</sup>가 그들이다.

이상으로 『어린이』를 중심으로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 활동을 살펴 보았다. 정인섭·손진태와 같은 색동회 회원을 중심으로 한 기성 청년문인과 보통학교나 고등보통학교에 드나들 나이의 소년문사, 두 무리가 함께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둘 사이의 수직·수평적 연대는 잘 보이지 않는다. 기성문인보다는 소년문사의 자생적인 투고문단이 주도적으로 『어린이』의 활동을 이끌었다. 이들은 『어린이』 탈간 초기부터 꾸준하고도 한결같이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형성에 이바지했다.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로 들어서면서 그들 가운데 대다수가 기성문인으로서 얼굴을 새롭게 내밀며 경남·부산지역의 중심 아동문학가로 자리를 잡는다. 신고송·서덕출·이원수·이성홍·박석정·소용수·손길상이 그 대표되는 이름이다.

아동문학계의 좌·우노선 갈등과 고심의 흔적은 드디어 1930년대 들어 『어린이』에서도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엄홍섭·강로향과 같은 좌파 성향의 문인들의 『어린이』 드나들이 그 사실을 잘 말해준다. 김병호·손풍산·이주홍과 같은 급진 좌파 아동문학인의 경우는 『어린이』에 끝내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신소년』·『별나라』를 이끈다는 집단적·이념적 대표성이 너무 크게 각인된 까닭일

---

달라는 독자의 요구에 대하여, 『어린이』는 “아마 『신소년』과 『별나라』이겠지”라 답하고 있다. 『별나라』·『신소년』과 『어린이』 사이의 접근성을 암시한다.

『어린이』, 1932. 10권 9호, 66쪽.

32) 『어린이』, 1932. 8, 20-21쪽.

이와 함께 1932년 9월호 『사고』에서 볼 수 있는 바 이원수·서덕출의 글에 대한 ‘불허’ 처분은 의미심장하다.

33) (4월호현상당선발표), 『어린이』, 1932. 5, 29쪽.

34) (독자권유경쟁대현상5월말일현재성적) 1932. 6, 54-57쪽; (제6회에독자권유경쟁대현상) 1932, 8·9.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는 좌·우나 천도교라는 종교경계에 크게 걸림 없이, 기성문인·습작문인에 두루 걸치면서 1920-1930년대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형성을 돕는 대표적인 기반 매체로서 한결같고도 꾸준한 몫을 다했다.

### Ⅲ. 『신소년』의 지역 문화자본력

『신소년』은 1923년 10월에 창간된 아동잡지다. 1934년 5월호로 그쳤으니 햇수로 열두 해에 걸친 셈이다. 『어린이』와 함께 1920-1930년대 아동잡지를 대표하는 매체였다. 그러나 이제까지 『신소년』에 대한 논의는 계급주의 아동문학을 내걸었던 잡지라는 막연한 수준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sup>35)</sup> 그 까닭은 첫째, 무엇보다 『신소년』의 실체를 한 자리에서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았던 데 있다. 조금씩 환경이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일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둘째, 『신소년』의 주도 필진을 이루고 있는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인에 대한 이해가 모자랐던 데에도 한 요인이 있다. 『신소년』이야말로 『별나라』와 함께 지역적 시각에서 살필 때, 뒤편이가 뚜렷이 잡힐 전형적인 매체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인이 있다. 한국 근대 아동문학사에서 그들의 이바지가 빛나는 첫 자리가 바로 『신소년』인 셈이다.

#### 1. 소년 활동의 밀도와 편재성

『신소년』에는 ‘애독자명부’라는 난이 있다. 지분사(支分社)에 등록된 독자나 정기적으로 책을 위탁 주문해 읽는 독자들의 이름이다. 비록 발간 초기 1년 남

35) “소파의 색동회가 아동 문화 운동을 시작하자 그에 자극받아 간행되었으며……(줄임)……뚜렷한 지향점은 없었으나, 초기에는 강한 일본문학의 영향을 중기에는 소극적인 민족주의와 계급주의적 색채를 절충한 중간적 경향을 띠었으며, 말기에는 『별나라』와 함께 적극적인 계급주의 영향을 표방하였다. 이 잡지를 통해 주로 활동한 작가로는 이호성·신명균·맹주천·김석진·마해송·연성흠·고장환·정열모·권환·정지용·이주홍 등이다.”  
이재철, 『세계아동문학사전』, 계몽사. 1989, 199쪽.

짓 동안만 밝히고<sup>36)</sup> 있으나 『신소년』~향유층이 더 잡은 바닥을 엿보기에는 모 사람이 없다. 거기의 지역별 명단을 보면 20회 울산과 10회 고성, 그리고 9회 동래(부산)이 압도적이다. 그 밖에 진해가 4회, 진주가 3회로 뒤를 잇고 있다. 통영·산청·창원·함안·밀양은 1회씩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나머지 경남·부산지역은 애독자 소재 지역에서 빠진다. 그러나 소년회 활동을 고려하면 미 소재 지역 수는 크게 줄어든다.

소년회 활동은 진해·마산·남해·고성·합천이 두 차례, 진주·함양·울산이 한 차례씩 보인다.<sup>37)</sup> 거기다 강습소나 사설학교, 또는 약학까지 넣으면 사천·창원·마산·거창·김해·남해의 여섯 곳이 든다.<sup>38)</sup> 따라서 소년회 활동을 볼 수 없는 곳은 창녕·의령·양산·하동 네 곳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도 『신소년』~지분사 분포를 끌어들이면 소지역 조직활동이 드러나지 않는 곳은 창녕 한 곳뿐이다. 그런데 창녕은 경북 현풍지사에서 함께 관장하였다. 실제로 경남·부산지역에서 『신소년』~지분사나 소년 조직 활동이 보이지 않는 소지역은 한 군데도 없다는 결론이다.

게다가 밀도 또한 높다. 지분사 설치로만 본다면 부산이 네 곳<sup>39)</sup>, 합천이 세 곳<sup>40)</sup>의 빈도를 보인다. 김해·하동·남해<sup>41)</sup>는 각각 두 곳에다 지분사를 마련하고 있다. 나머지 창원·산청·함양<sup>42)</sup>·밀양<sup>43)</sup>·마산·의령·울산<sup>44)</sup>·양산은

36) 1923년 12월부터 1925년 1월호까지 지면에 오르고 있다.

37) 들쭉 드러나는 곳은 진해 천성소년회(1924)와 가덕진소년회(1924), 마산 전마산 소년소녀단(1926)과 신화소년회(1926), 고성 두포리 창명학회(1924)와 김형두의 광명사(1927), 합천 합천토요회(1926)와 이성홍의 달빛사(1927)가 있다. 진주는 정상규의 새힘사(1930), 남해는 '무산소년문예기관' 흰빛사(1931), 함양은 불교소년회(1926), 울산은 울산소년회(1926)가 한 차례로 그 뒤를 잇고 있다.

38) 사천 문진학교(1923년), 창원大成학교(1924년), 마산배달학원(1926), 마산 소년 독서회(김형윤의 발기, 1925), 거창 남상학교(1926), 김해송정소년단야학(황대생 책임, 1931년), 남해군 서면 석장리 노동소년학원(1932).

39) 부산지사(1924), 사하지사(1931), 하단지사(1934), 명지 동리지사(1934).

40) 합천지사(1930), 약로지사(1931), 삼가지사(1932).

41) 태산, 녹산 두 곳이다. 1931년 2월에 설치된 김해 녹산지사의 지사장은 김종대다; 하동읍, 진교읍; 남해읍, 창선.

42) 1926년 3월에 설치된 산청·함양지사는 함양 불교소년회에서 복수로 운영하였다.

43) 밀양지사는 1931년 1월에 설치되었는데, 1932년 1월에는 박석정이 그 사원으로

한 곳으로 뒤를 따른다. 가장 많이 마련된 부산은 동래와 하나로 묶여서 그렇다 하더라도, 서부 경남의 궁벽한 읍인 합천이 세 곳에서 그것도 분사가 아니라 지사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이채롭다. 합천지사와 야로지사 두 곳에서 이성홍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서울에서 『신소년』 편집을 맡았던 형 이주홍과 함께 형제의 역할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소년』의 향유층과 지분사는 경남·부산 소지역 거의 모든 곳에 밀도 높게 깔려 있었다. 이 점은 『어린이』의 활동과는 사뭇 다른 『신소년』의 지역에 대한 영향력과 문학사회 구성력을 엿볼 수 있는 한 터무니다. 두 가지 요인이 이 일을 거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천도교 소년회 조직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어린이』와 달리 『신소년』은 처음부터 상업적 아동지로 출발하였다는 점이다. 여러 계층, 여러 취향의 소년독자들이 매체에 다가서기가 더욱 쉬웠을 것이다. 둘째, 이주홍이 여섯 해 남짓 『신소년』 편집을 맡아 일하면서 활용했을 지역의 문화자본력과 무관하지 않은 일로 보인다. 이 점은 그가 일본에서 돌아와 관여하기 시작한 1929년 이후 지분사 설치가 더욱 활발하고 빈도가 높아진 데서 엿볼 수 있다.<sup>45)</sup>

## 2. 다양한 진퇴와 지역 연대

『신소년』은 『어린이』와 비슷한 시기에 나와 정간도 비슷한 시기에 맞이한 매체다. 『신소년』에 글을 실은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인 또한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기성문인과 투고문단의 소년문사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기성문인으로 대표되는 이는 정인섭·손진태다. 『어린이』와 다르지 않은 셈이다. 큰 변화

---

발령을 받고 있다.

44) 1927년 1월 설치된 울산지사의 지사장은 울산의원장 양봉근이 맡고 있다.

45) 아직까지 『신소년』의 전모가 다 밝혀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경남·부산지역 『신소년』 지분사 분포도와 그 추이 과정을 단순화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나고 있는 정황으로만 미루어 볼 때, 지분사 설치에 있어서 이주홍이 편집을 맡기 시작한 1929년을 경계로 해서 앞 시기에는 여덟 곳-부산·사하·하단·명지·김해 태산·산청(함양)·창원·울산에, 그 뒤 시기에는 열다섯 곳-합천·합천 야로·삼가·하동 진교·진주 문산·밀양·김해 녹산·남해 창선·함안 연포·삼천포·남해·의령·양산·함안·하동에 지분사가 설치되고 있어 그 개연성이 높다.

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신소년』에는 『어린이』에서 볼 수 없었던 문인이 새로 오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양봉근과 최현배, 그리고 이극로다. 『신소년』을 낸 신명균이나 고정 필자인 정렬모와 가까운 사이라는 개인 연고가 작용한 참여다.

양봉근은 울산에서 병원을 경영한 의사문인이라는 특이한 신분을 지녔다. 창작 영역 활동은 잘 보이지 않지만, 아동의 위생 환경 개선을 겨냥한 여러 계몽적인 글을 남기고 있다.<sup>46)</sup> 소년회 조직이 활발했던 이웃 언양 쪽의 소년문사들과 고리 지워진 징후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 『신소년』의 운영진과 친분 관계가 각별했다.<sup>47)</sup> 검열로 삭제되긴 했어도 울산 최현배도 한 차례 얼굴을 내밀고 있다.<sup>48)</sup> 그 또한 지역 소년 조직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어린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920년대-1930년대 경남·부산의 기성문인들은 당대 지역의 투고 문단과 수직·수평적 연결 고리가 없이 엘리트 필진으로 남아 있었던 셈이다. 그리고 그들은 『신소년』의 뒤떨이가 좌파 기풍을 떨치기 시작했던 1928년부터는 작품을 내놓지 않는다.<sup>49)</sup> 이극로만이 얼굴을 내비치고 있다.<sup>50)</sup>

특이한 경우는 권환이다. 이제까지 시인·평론가로서 알려져 있었던 권환은 이미 『신소년』~탈간 초기인 1925년에 소년소설 『어머니』를 기성문인 자격으로 발표하고 있다.<sup>51)</sup> 그 뒤 『신소년』을 빌린 아동문학 활동 또한 매우 활발한 쪽

46) 양봉근, 『소년위생강화』, 1926. 8, 13-16쪽; 『소년위생강화』, 1926. 12, 42-45쪽; (소년위생여행) 『회충니약이』, 1926. 1, 17-19쪽; (전쟁미담) 『너의 어머니』, 1927. 4, 26-29쪽.

47) 정렬모에 따르면, 『신소년』~탈간인 신명균과 양봉근은 학연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부터” “놀러 오란 부탁”을 할 정도였다. 따라서 1926년 8월 2일부터 정렬모와 신명균은 남쪽 여행길에 나서 경주를 둘러보고 떠날 때, 병영에 있는 ‘친우’ 최현배를 만나러 하다 울산으로 바로 들어가 울산병원장 양봉근을 만난다. 그리고 거기서 보름간 ‘조선어강습회’를 하면서 머문다. 정렬모, 『남선여행기』(1), 1926. 11, 62-66쪽; 『남선여행기』(2), 1926. 12, 29-66쪽; 『남선여행기』(3), 1927. 1, 29-32쪽.

48) 최현배, 『조선과 소년』, 『신소년』, 1928. 8·9, 27쪽(6매 삭제).

49) 정인섭과 손진태는 나란히 1928년 무렵부터 『신소년』에 글을 올리지 않았다.

50) 이극로, (소년에 대한 바람) 『극단으로 하라』, 『신소년』, 1930. 1, 22쪽.

51) 권 환, 『아버지』, 『신소년』 7월호, 신소년사, 1925, 39-46쪽.

따라서 이 작품이 권환의 첫 발표작품이자 등단작으로 알려졌다. 이 작품의 발굴과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권환 아동문학의 실상은 이창렬이 처음으로 다



이다.<sup>52)</sup> 또래 집단들이 꾸준히 습작 활동을 할 무렵 그는 이미 기성문사로 대접을 받고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비록 어린이 매체가 아니지만 권환은 1924년 『조선문단』에 소설을 투고해 이광수의 손을 거친 입상 경력을 지니고 있다.<sup>53)</sup> 따라서 권환 또한 기성문인이라고는 하나 짧은 시기 투고문단을 빌린 습작 경험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기성문인에 견주어 『신소년』의 투고문단은 매우 활발하였다. 『어린이』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이성홍·이원수·신고송·서덕출·소용수·박석정과 같은 소년문사뿐 아니라, 새롭게 마산 김형운·고성 김재홍·김형두와 같은 이가 『신소년』의 독자마당에 심심찮게 얼굴을 내밀고 있다. 『신소년』~탈간 초기 3년을 갖대로 살펴보면 신고송이 19회<sup>54)</sup>, 이성홍이 13회<sup>55)</sup>, 이원수<sup>56)</sup>·소용수<sup>57)</sup>·서

루었다.

이장렬, 「권환 문학 연구」(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3), 27-48쪽.

- 52) (소년소설) 『아버지』(1회), 1925. 7, 39-46쪽; (소년소설) 『아버지』(2회), 1925. 8, 36-41쪽; (소년소설) 『아버지』(3회), 1925. 9, 31-37쪽; (단편소설) 『강제의 꿈』, 1925. 10, 38-42쪽; (동화) 『세상구경』, 1925. 11, 32-36쪽; (소년소설) 『언밥』, 1925. 12, 25-32쪽; (소년소설) 『마지막의 우슴』, 1926. 2, 50-53쪽; (소설) 『마지막의 우슴』(2회), 1926. 3, 27-30쪽; (소년소설) 『마지막 우슴』(3회), 1926. 4, 43-45.
- 53) 이즈음 글쓴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권환의 첫 발표 작품은 소년소설 『아버지』가 아니라 이광수가 심사평을 붙여 『조선문단』(1924. 12)에 내놓은 소설 『아즈매의 사(死)』다. 이 작품으로 권환의 투고문단 활동을 알 수 있으며, 권환의 첫 발표 작품의 햇수도 1925년에서 한 해가 당겨진다.
- 54) 1924년 3월 (독자문단) 동요부 『선외가작』 신고송, 신말찬 2회, 작문부 『선외가작』 신말찬 신고송 2회, (애독자 명부) 2회, 모두 6회; 이런 사정은 5회에 걸친 이원수도 비슷하다. 1924년 5월호 (독자문예) 선외가작 신말찬 이름으로 3회, (독자통신) 1회, (그림맞춰내기발표) 1회, 모두 5회; 1924년 5월호 (독자문예) 동요 선외가작 1회, 동화 선외가작 1회, (자유화 발표) 1회, 모두 3회; 1924년 7월호 (독자문단) 동요부 선외가작, 작문 선외가작, 동화 선외가작, 그림그리기 3등, 모두 4회; 1925년 1월호 (상식시험발표) 1회.
- 55) (독자문단) 『잠자는 동생』 첫 발표, 1924. 3; (독자문예) 작문 상 『아버지의 고심』, 1924. 4, 49-50쪽; (독자문단) 동요 선외가작 1회, 작문 선외가작 1회, 동화 선외가작 1회, 모두 3회, 1924. 6, 48쪽; (독자문단) 『맹기』(在來) 『소년악대』 『강변에』, 1925. 9, 53쪽; (독자문단) 선외가작 『갓지 안은 사람』, 1925. 9, 59쪽; (독자문단) 동요 『시집사리』(在來), 1925. 10, 62쪽; (독자문단) 동요 선외가작, 1925. 11, 56쪽; (독자문단) 작문 선외가작, 1925. 11, 60쪽; (동요) 선외가작 『목동』, 1926. 6, 30쪽; (작문) 『녹음』, 1926. 6; (동요) 『개고리』, 1926. 7, 62쪽;

덕출<sup>58</sup>)이 6회, 박석정<sup>59</sup>)이 1회의 투고를 보여준다. 『어린이』보다 훨씬 왕성했던 활동을 엿볼 수 있다. 아래에 올린 『봄이 오면』은 이원수의 첫 발표 작품이다. 흔히 알려져 있는 『고향의 봄』보다 두 해 먼저 나왔다.

나는 나는 봄이 오면  
벼들까지 썩거다가  
필이 내여 입에 물고  
라래라래 자미 잇서

나는 나는 봄이 오면  
진달래와 개나리로  
금강산을 꾸며놔코  
손뚝작난 자미 잇서

나는 나는 봄이 오면  
수양버들 밋헤 안저  
꽤쉴 꽤쉴 우는 새의  
소리듯기 자미 잇서  
- 이원수, 『봄이 오면』<sup>60</sup>)

김재홍은 특이한 경우다. 1924년부터 『신소년』에 투고를 시작하여 1926년까지 26회<sup>61</sup>)나 작품과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무렵 경남·부산 지역 소년문사로

---

(작문) 『하휴를 맛난 동무들』, 1926. 11, 71쪽.

56) (선외가작) 동요부 2회, 작문부 2회, (애독자 명부) 1회, 모두 5회, 1924. 3; (독자문예) 동요 상 『봄이 오면』, 1924. 4, 47쪽; (동요) 『외로운밤』, 1926. 8, 61쪽.

57) (독자문예) 선외가작, 1924. 5, 56쪽; (독자문단) 선외가작, 1924. 6, 49쪽; 선외가작, 1925. 7, 60쪽; (독자문단) 동요 선외가작; (독자문단) 선외가작 『보리타작』, 1926. 8, 54-55쪽; 『월야의 포구』, 1926. 8, 71쪽.

58) 투고작품 『봉선화』, 1925. 7, 59-60쪽; (독자문단) 동요 선외가작 『별』, 『비』와 작문 선외가작 『여름의 저녁』, 1925. 8, 60쪽; 『구름비』, 『달』, 1925. 9, 54-55쪽; (독자문단) 선외가작 『서늘한 月夜』, 1925. 9, 59쪽; (독자문단) 선외가작, 1925. 10, 63쪽.

59) (독자문단) (동요) 『나의 동생』, 『신소년』, 1925. 9, 53쪽.

열네 살 밀양공립보통학교 재학시 첫 작품이다.

60) 『신소년』, 1924. 4, 47쪽.

61) (독자문예) 작문 상 『우리 신소년형님들에게』, 1924. 4, 48쪽; (독자문예) 동요 상 『초생달』, 1924. 5, 56쪽; (독자문단) 동요부 선외가작, 1924. 7; 작문 상 『우

서는 가장 빈번하다. 김형두는 1926년까지 세 차례 이름을 올리고 있다.<sup>62)</sup> 『신소년』은 그 초기부터 『어린이』와는 뚜렷하게 나뉠 정도로 많은 경남·부산의 소년문사들이 참여했다. 이런 흐름은 1927년을 거치고 1930년에 이르기까지 거듭된다. 합천 정기주<sup>63)</sup>는 그 사이 새롭게 투고를 시작한 이다.

그러므로 1927년 8월호 『신소년』은 당대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위상을 잘 볼 수 있게 한다. 곧 권환이 앞서고 서덕출·이성홍·정기주·김형두와 같은 뒷날 문인으로 자란 사람뿐 아니라, 무명의 소년문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이들이 넓게 포진했다. 글의 무게와 관계없이 살펴보면 모두 69회에 걸친 가운데서 경남·부산지역 글쓴이의 글이 23회에 이른다.<sup>64)</sup> 33%나 차지했다. 이러한

리의 전정, 1924. 7; (독자문단) 동화 게재, 1924. 8, 60쪽; 가작, 1924. 8, 60쪽); (독자명부) 1925. 1; (독자문예) 동요 『고흔스곳』, 1925. 4, 51쪽; (작문) 선외가작, 1925. 4, 56쪽; 선외가작, 1925. 7, 60쪽; (독자문단) 『고대하든 감우』, 1925. 8, 57쪽; (동요) 『씨누와 울키』, 1925. 8, 53쪽; (선외가작) 1925. 8, 『왕거미줄』, 55-60쪽; 『죽기자랑』(在來), 1925. 9, 53-54쪽; (독자문단) 작문 상 『귀성하신 벗들에게』, 1925. 9, 55-56쪽; (독자문단) 동요 선외가작, 1925. 11, 56쪽; 작문 상 『燈火를 可親할 가을이 왔다』, 1925. 11, 56쪽; (독자문단) 동요 선외가작 『동랑 왓소』, 1925. 12, 64쪽; 작문 선외가작 『사랑하는 鍾山형의게』, 1925. 12, 68쪽; (독자문단) 동요 『초스불』, 1926.2, 28쪽; (독자문단) 작문 가작, 1926. 2, 68쪽; (담화실) 1926. 4; (동요) 선외가작, 1926. 6, 30쪽; (소년시) 『은구슬』, 1926. 6, 30-31쪽; 『벽국새』, 1926. 7, 63쪽; (동요) 『반딧불』, 1926. 8, 62쪽.

62) (통신) 1925. 8, 52쪽; (독자문단) 작문 선외가작 『보리타작』, 1925. 9, 54-55쪽; (2월현상당선발표) 1926. 4, 57쪽.

김형두는 진주농림학교 재학시인 1927년 4월호에도 입선동요 『비비새』를 실으면서 활동을 거듭했다. 경남 고성 삼산면 출신으로 1919년생이다. 1930년 진주공립농업학교서 광주학생의거로 학업을 퇴학당하고 일본대학에서 수학하였다. 귀국 뒤 오래 신문기자 생활을 거쳤는데, 1947년 9월 부산에서 『수산신문』을 일간 『산업신문』으로 고쳐 냈다. 현 『국제신문』의 전신이다. 1957년에는 『국제신문』 자장에 올랐다. 수필집으로 『내가 본 세계』(국제신문사출판부, 1959)이 있다.

63) 1927년 3월호 입선동요 『새보기』가 첫 발표 작품이다.

64) (笑科大學) 『전봇대에 옷을 부쳐』 2학년 진주 강갑출, 28-19쪽; 『원통으로』 2학년 부산 김삼룡, 29쪽; (신시) 권경완, 『지도에 엮는 아버지』, 33-34쪽; 권경완 『왜 어른이 안 되어요』, 35쪽; 권경완, 『안 무서워요?』, 36쪽; (동화) 권경완, 『카라(襟)』, 40-43쪽; (현상 서한문) 『友人에 사진을 與함』 울산 박영명, 49-50쪽; (소년시) 의령 이영희, 『석류꽃』, 59-60쪽; (담화실) 일보교생, 『울산 박영명군』, 62-63쪽; (작문) 의령 김장언, 『일기문』, 64쪽; 동래 강중규, 『喜雨』, 65-66

경남·부산지역 문인의 높은 비중은 1928년 5월 『배암색기의 무도』로 등단한(65) 이주홍이 『신소년』 편집을 맡게 된 1929년부터 더욱 높아진다. 이주홍의 편집권과 활약이 두드러지게 커졌다. 1930년 3월호 『신소년』은 그 좋은 본보기가 될 만하다. 그는 표지에서부터 모두 여섯 차례나 해당 호에 이름을 올렸다.(66)

이후 경남·부산지역 좌파 아동문학인의 다수가 기성 자격으로 『신소년』의 주요 필진으로 들어서기 시작한다. 엄홍섭(67)과 정상규의 동화 추천(68)을 시작으로 1930년 2월에는 하동의 김병호가 『신소년』에 작품을 실기 시작했다. 신문 투고가 잦았던 통영 탁상수도 예외가 아니다.(69) 오래 소년문사로 활동했던 고성 김재홍도 드디어 기성대우로 동요 『겨울 밤비』를 내놓고 있다. 이어 합천 손풍산·거제 이구월·함안 양우정이 잇달아 『신소년』을 다채롭게 메우며 눈부신 활동을 펼쳐 나갔다. 그런 모습을 한 차례 묶어서 보여준 자리가 1930년 6월호 『신소년』이다. 곳곳에 경남·부산지역 기성문인과 소년문사가 나란히 자리를 차지했다.(70) 소년문사로 이름이 알려졌던 진주의 손길상·이재표(71), 남해

---

쪽; 울산 서덕출, 『夢中の 甘雨』, 73-74쪽; 합천 이성홍, 『어머니 뵈고 십허』, 74-75쪽; (동요) 동래 강중규, 『짜는 베』, 65쪽; 합천 정기주, 『할미꽃』, 66쪽; 이성홍, 『동무생각』, 67쪽; 울산 서덕출, 『비』, 68쪽; 고성 김형두, 『특기』, 70쪽; 울산 이인호, 『해바래기』, 74쪽; 언양 신동엽, 『모기』, 74쪽; (애독자사진) 고성 읍 교사리 김형두, 울산읍 학산동 서덕출(19세), 울산시 학산동 박영명(15세).

65) 이와 관련된 전후 사정은 아래 글 참조 바란다.

박태일, 『이주홍의 초기 아동문학과 『신소년』』, 『현대문학이론연구』 18집(현대문학이론학회, 2002); 『이주홍의 등단작 시비에 관하여』, 『인문논총』 16집(경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03).

66) (표지) 이주홍 『박귀』; (동요) 『봄날』, 1쪽; 『풀갓시』, 3쪽; (아동극) 『팔밭』 ‘전 문발매 부드기한사정으로 약합니다’; (아프리카 동화) 『눈먼호랑이』, 10-11쪽; (소설) 『북행열차』, 1930. 6. 29-34쪽.

67) (소년시) 『소년행진곡』, 『신소년』, 1929, 7·8, 24쪽.

68) 정상규, 『죽인 고양이』, 『신소년』, 1929, 7·8, 40쪽.

69) 탁상수, 『곤불아』, 1930. 7, 12-15쪽; (소년시) 『어머님! 아버지는 왜?』, 1930. 8, 4-5쪽; (동요) 『목간집 굴속』, 1930, 10·11, 21쪽.

70) (7월호 한권씩을 가집시다!) 마산 채삼규 부산 정모일 의령 송우시 창녕 이기영 부산 이일수 함양 이문금 함안 조운구 울산 하도순 함안 천차수; (유년동요) 엄홍섭 『너름밤』 이주홍 화, 1쪽; (동요) 양우정 『망아지』, 7쪽; (소설) 이주홍 『잉어와 윤침지』, 8-13쪽; (수필) 양우정 『풀밭에 누어서』, 16-17쪽; (소년시) 이성

박대영<sup>72)</sup>도 의적이 기성 대접을 받고 있다. 하동의 강로향 또한 『신소년』의 주요 필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던 무렵이다.<sup>73)</sup>

그리고 1931년 앞뒤 시기부터는 투고문단을 거친 흔적이 잘 보이지 않는 한 무리의 새로운 경남·부산 지역문인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진주 김성봉과 김해 황대생·김중대, 마산의 강호, 부산 사하 윤차룡이 그들이다.<sup>74)</sup> 이들 가운데 김성봉과 강호는 아동문학에 더 다가서지는 않았지만 주요한 지역문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많은 활동을 벌였다. 이들의 등장과 함께 카프 안쪽의 격화된 세대·이념 대립을 방불하게 하는 불화가 지역 안쪽의 청소년문사 사이에서 감지되기도 한다.<sup>75)</sup> 이어서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활발하게 매체 활동을 벌였던 『신소년』의 주요 필진 김병호·이구월·손풍산·이주홍과 같은 이의 활동이 빠르게 퇴조하고 있다.<sup>76)</sup>

---

홍 「떡방 속의 父子」, 23-25쪽; (동요) 이구월 「미워미워 영감보」, 34쪽; (동요 6월) 새힘사 손길상 「떠나는 아희의 노래」, 48쪽; (물리독물) 김병호 「동물계의 일치」(2), 36-37쪽; (이과) 이주홍 「뱀이와 금붕어」, 42-43쪽; (독자담화실) 진주 손길상 「이주홍……」, 53쪽, (사고) 명칭 신소년덕포지사 위치 사상역전 덕포리 714 구역 사상면 일원 사원 지사장 황성민 임원 김성덕 이치봉 김석근 서정식 김종호 김상묵 이유홍의 5인, 54쪽.

71) 1930. 10·11.

72) 1931년 2월부터 동요(44쪽)를 신고 있다.

73) 강로향, (동요) 「쉬는 기계 돌려라」, 1931. 1, 24쪽; (소년소설) 「농촌의 황혼」, 1931. 1, 31-33쪽.

74) 김성봉, (소년소설) 「푸른 모자」, 1930. 10·11, 24-29쪽; 황대생, (동요) 「병드는 농사」, 1931. 2, 6쪽; (야학소개) 「金海松亭少年團夜學」, 같은 책, 47-48; 강호, 「표지 그림」, 1931. 3; 김중대, (소년시) 「울지 마라라」, 1931. 4, 42쪽; 윤차룡, (수필) 「그리운 동무」, 1931. 5, 8-9쪽.

75) 『신소년』 7월호에 실린 박대영의 「노동야학교의 노래」가 실상은 “노동자의 학교가 아닌” “모보습학교를” 거짓으로 그린 것이라 한 실랄한 비판에서 그 징후를 엿볼 수 있다.

남해지사 김철하, (자유논단) 「작품과 작가」, 『신소년』, 1932. 8, 38-40쪽.

76) 그들 활동의 결정판은 ‘푸로레타리동요집’ 『불별』(중앙인서관, 1931. 3)의 간행이었다. 모두 여덟 사람의 동요에, 네 명의 삽화, 그리고 세 사람의 곡으로 이루어진 동요집이다. 동요를 지은 여덟 사람 가운데 박세영을 제외한 일곱 사람이 경남·부산지역 문학인이다. 삽화를 그린 네 명 가운데 정하보를 제외한 세 사람이 경남·부산지역 문학인이다. 그리고 곡을 붙인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또한 경남·부산 예술인이다. 1930년을 전후한 시기 계급주의 아동문학에 나타

이들은 하나같이 1931년에 들어서면서 작품 활동을 줄였다. 보통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던 김병호·이구월 경우는 이른바 조선총독부의 감시감독이 누구보다 직접적으로 압박했을 것이다. 손풍산은 학교를 이미 떠난 뒤였다. 이주홍은 대대적인 카프 1차 검거가 있었던 1931년 10월부터 몸을 피해 고향으로 내려갔던 것으로 보인다.<sup>77)</sup> 그리하여 1932년 11월부터 다시 돌아와 죽 정간까지 『신소년』과 함께 했다. 이러한 변화를 겪으면서 『신소년』은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이주홍과 가까이 엄홍섭의 주도 활동 장소가 되었다. 함안의 이원수만이 틈틈이 지면을 메웠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신소년』에서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위상은 줄어드는 형국이다.<sup>78)</sup> 그런 속에서 남대우가 『신소년』에서도 화려한 등단 절차를 거침으로써<sup>79)</sup>, 장차 매체 환경이 급격히 나빠졌던 1930대 중반 이후에도 활발할 그의 모습을 예시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신소년』은 경남·부산 아동문학의 형성과 발전에 결정적인 이바지를 한 매체다. 초기에는 기성문인의 참여가 드물지 않게 이루어졌다. 울산의 의사 양봉근과 같이 특이한 이력의 작가도 선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신소년』을 중심으로 삼은 초기 기성문인들의 활동은 발간주체와 개인 연구에 걸린 것이어서, 지역의 투고문단과는 수직·수평 연대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

---

나고 있는 경남·부산 지역문학의 압도적인 역할과 비중을 짐작하게 한다. 『불별』은 이즈음 발굴, 소개가 이루어졌다.

『지역문학 발굴자료 『불별』(1931)』, 『지역문학연구』 8집(경남·부산지역문학회, 2003).

77) 이제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그러나 홍구에 따르면 그 무렵 사정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여기서 이쳐지지 않는(현재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중략)…… 「동심으로부터」라는 글로 한참 물의를 일으키든 신고송군 동요작가인 이구월군 신소년 편집으로 한참 재능을 보이든 이주홍군 동요작가이며 평론가인 김병호군 이분들은 지금은 조금도 활약을 안하야 준다. 좀더 성의 있고 자각 있는 아동문학작가들의 배출을 기둘리며 아동문화에 대하여 좀더 유의하며 연구하여 주기를 기둘른다.” 이 무렵 향파는 함천에서 『무산소년』이라는 책을 낼 계획이 있었던 듯 하나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홍 구, 「아동문학 작가의 프로필」, 『신소년』, 1932. 8, 28-29쪽.

78) 『신소년』의 전반적인 출판 환경의 악화와 관련이 있는 일이다. 본보기로 1933년의 10월, 11월, 12월 세 달 동안 『신소년』을 내지 못한 경우도 있다.

79) 남대우, 『신소년 3월호 동요를 읽은 뒤의 감상』, 1934. 4·5, 26-27쪽; (추천동화) 『염소와 토기』, 같은 책, 49-52쪽; (동요) 『깜박!』, 같은 책, 56쪽.

나 『신소년』~지분사나 소년회 조직의 빈도와 밀도는 매우 컸다. 경남·부산의 거의 모든 지역에 걸쳐 활발한 활동이 감지된다. 1929년에 들어서서 이주홍의 『신소년』~편집 관여는 그러한 양상에 불을 끼얹은 형국이다. 그의 문화자본력을 중심으로 경남·부산지역 문학인의 비중은 급속하게 높아졌으며, 그들을 빌려 좌파 매체로서 『신소년』의 역량과 특성은 뚜렷해졌다. 새로운 필진의 진입과 새로운 소년문사의 등장도 그로부터 가능한 일이었다.

비록 들쭉날쭉했지만 『신소년』의 처음부터 끝까지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인의 역할은 매우 컸다. 『어린이』와 달리 필진의 출퇴가 잦은 특징도 보인다. 『어린이』와 필진 넘나들이 두드러지나, 『신소년』에만 글을 실었던 문인이 더 많았다. 이런 점이 『신소년』이 지녔던 지역 연고와 이주홍으로 대표되는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인의 문화자본력을 새삼스럽게 보여주는 일이다. 『신소년』이야말로 좌·우에 관계없이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제도화 매체로서 결정적이고도 다채로운 몫을 다해 주었던 셈이다.

#### IV. 『별나라』의 매체 투쟁과 응집력

『별나라』는 『어린이』·『신소년』보다 세 해 늦은 1926년 6월에 창간된 아동잡지다. 3월 창간된 『아이생활』보다는 석 달이 늦게 나왔다. 1935년 1·2월합호까지 나왔으니 헛수로 10년에 걸친다. 창간 당시 편집 동인은 안준식·김도인·양고봉·염근수·최병화·최희명과 같은 이였다. 사장은 안준식이 맡았다. 그런데 『별나라』가 처음부터 ‘무산소년소녀’를 위한 계급주의 아동 매체로서 됴됨이를 분명히 한 것은 아니다. 『별나라』의 노선이 굳어지게 된 때는 1928년을 앞뒤로 한 시기로 보인다.<sup>80)</sup> 박세영·송영·임화가 차례로 편집에 뛰어들

80) 엄홍섭에 따르면, 『별나라』는 1926년 창간에서 1935년 정간까지 모두 3기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1926년 창간부터 1927년 7월까지 ‘계몽기’, 1927년 8월부터 1932년 6월까지 ‘목적의식기’, 그리고 1932년 7월부터 정간까지가 ‘투쟁기’다. 목적의식기 앞쪽은 송영이 『별나라』의 편집을 맡았고, 박세영은 1927년 11월부터 편집을 맡았다. 그러면서 『별나라』는 점점 “무산아동의 튼튼한 진영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고, 장차 엄홍섭이 거기에 가세를 결심할 시기였다.

따라서 논조와 작풍이 격렬해진 『별나라』는 1928년과 1929년 두 해 사이에 여섯 번이나 나오지 못하는 수난을 겪기에 이른다.<sup>81)</sup> 산술적으로 보면 월간 『별나라』는 1935년 1·2월합호로 정간될 때까지 104권이 나왔어야 했다. 그런데 통권 80호밖에 나오지 않았다. 꾸준하게 이어졌을 출판 안팎의 어려웠을 사정을 짐작하게 한다. 현재까지 그 실물 확인이 가장 어려운 매체로 『별나라』가 남게 된 것도 뜻밖은 아닌 셈이다. 그러한 『별나라』의 수난과 고초는 고스란히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인의 것과 나란했다는 점에서 『신소년』과는 또 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1. 중층적 소년 조직의 열의

『별나라』는 정간이 잦았다. 출판 환경이 다른 매체에 견주어 더욱 어려웠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그러한 수난과 어려움에 반비례하여 『별나라』 독자층은 급격하게 나라 안팎으로 넓혀져 나갔다. 『별나라』 쪽 통계에 따르면 1931년 6월 현재 독자는 267명<sup>82)</sup>에 지나지 않았다. 그랬던 것이 1932년 1월호에는 10371명으로 는다.<sup>83)</sup> 카프 소장파와 기독교층 사이의 노선 다툼과 알력이 심했던 시기다. 문학 바깥 정세도 어려웠던 때다. 그런 가운데서 1년 뒤인 1933년 8월에 이르러서는 구독자가 11000명까지 이르렀다.<sup>84)</sup> 이 통계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2년 2월 남짓한 기간만에 『별나라』는 구독자가 거의 네 배로 늘어났다는 뜻이다. 대단한 발전과 호응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엄홍섭, 『별나라의 거러운 길-별나라약사』, 『별나라』, 1945. 해방속간 제1호, 8-10쪽.

81) 편집실, 『별나라는 이러케 컸다-별나라 5년 약사』, 『별나라』, 1831. 6, 6쪽.

82) 『별나라는 이러케 컸다-별나라 5년 약사』, 1931. 6, 6쪽.

별나라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짜어놓튼이’는 안준식, 김도인, 최병화, 박세영, 임화, 송영, 엄근수, 엄홍섭.

83) (꿈꿈이신문) 『별나라에 나타난 각지방소년계발상황』, 『별나라』, 1932. 1, 42쪽.

84) 1933년 8월호 『별나라』 “독자의 물음”에 대한 별나라사 쪽의 답변에 따른다. “서울에만 애독자가 1000명, 지방에 10000명이올시다”라 하고 있다. 말하자면 11000명쯤 된다는 뜻이다.

『별나라』, 1933. 8, 39쪽.



지역별로 살펴보면 1932년 1월 현재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의 독자가 압도적이다. 이어서 전남·전북을 아우른 호남지역이 뒤를 잇고, 경남·부산을 포함한 영남 지역이 그 뒤를 따른다. 도별로 보면 경남·부산이 488명의 독자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경남·부산지역이 독자층이나 『별나라』의 보급에 있어 중심 장소는 아니었다.<sup>85)</sup> 게다가 소년회 조직 활동도 『별나라』에서는 그 기미를 쉬 볼 수 없다. 무산소년 문예활동의 뿌리가 깊었던 진주의 새협사와 남해의 남해소년문예사가 얼굴을 내밀고 있을 따름이다.<sup>86)</sup> 그렇다고 해서 『별나라』의 소년 조직 활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 점은 『별나라』의 지분사 설치와 묶어서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별나라』의 경남·부산지역 지분사는 모두 열네 개가 확인된다.<sup>87)</sup> 구독자 수나 소지역의 위상 변화에 따라 지분사가 꾸준히 설립되었다 사라졌다 하지만, 열네 곳 지사가 설립된 소지역은 모두 『신소년』의 지분사가 있는 곳이라는 데 눈길을 줄 필요가 있다. 거기다 함천지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소년』지분사와 『별나라』지분사의 장이나 기사가 겹치는 경우까지 있다. 말하자면 『별나라』는 『신소년』과 동일한 구성원이거나 비슷한 지역적 분포를 가지고 향유층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sup>88)</sup>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지분사의 이름만 가지고

85) 『별나라』의 기록에 따르면 경남의 개인 독자 수는 147명, 지분사에 나타난 독자 수는 181명, 서점위탁판매소에 나타난 독자수는 160명이다. 구독자 총10371명을 도별 통계에 따라 적으면 아래와 같다. 경기 2133명, 함남 1469명, 함북 1133명, 평남 611명, 평북 661명, 황해 495명, 전남 1118명, 전북 633명, 경남 488명, 경북 420명, 강원 292명, 만주 292명, 일본 210명, 충남 71명, 충북 5명, 미국 25명, 큐바 15명, 기타 300명이다.

(공꿈이신문) 『별나라에 나타난 각지방소년계발상황』, 『별나라』, 1932. 1, 40-42쪽.

86) 새협사 정상규, 『봄의 찬미』, 1929. 2, 60쪽; 남해소년문예사 정윤환, (동요) 『여름밤』, 1930. 7.

87) 죄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팔호 안은 설치 사고나 이동 사고가 난 해와 달이다. 울산지사(1926. 7, 병영), 울산지사(1934. 4, 목도); 함양분사(1927. 4), 함양지사(1934. 2); 함천분사(1927. 6, 분사장 이성홍), 가회분사(1932. 7), 함천지사(1935. 2), 삼가지사(1934. 4); 고성지사(1927. 6); 남해지사(1930. 6), 남해 별나라분사(1931. 6, 사무원겸 서면 주재기자 박대영); 의령지사(1930. 11); 김해 녹산지사(1932. 2·3), 부산 동래지사(1933. 8, 지사장 박문하, 칠산동 319-1); 하동지사(1943. 2, 기자 남대우 1934. 12월 사임)

서 『별나라』를 중심으로 한 소년조직 활동이 열세였다고 말할 수 없다.<sup>89)</sup> 『별나라』는 지역 안쪽 향유층의 수에서는 많지 않았지만 열성적인 중층적 활동을 집작하게 한다.

## 2. 지역적·이념적 배타성과 연고문학

『별나라』는 그 출발부터 무산소년 활동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매체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른바 기성의 엘리트 아동문학인이라고 불릴 만한 인물들, 곧 색동회 회원의 진입은 단혀 있다. 경남·부산지역으로 보자면 손진태·정인섭에다 이은상과 같은 이다. 그들의 이름은 『별나라』에서 한 차례도 찾을 수 없다. 이것은 주요한·최남선·김억까지 『별나라』에 글을 올리고 있는 일로 보아 이례적인 경우다. 초기 편집인과 그를 둘러싼 주도 필진이 서울·평안도 출신이라는 지역적 태생의 차이, 세대 차이가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 『별나라』의 이념 노선이 분명해지면서 다양한 문학인들의 진입 장벽은 더욱 두터워졌을 것이다.

이에 건주어 보면 앞선 시기부터 『어린이』, 『신소년』과 같은 여러 매체의 투고문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소년문사들의 이름은 창간 삼년 동안 한결같이 빠지지 않는다. 곧 서덕출<sup>90)</sup>, 이성홍<sup>91)</sup>, 신고송<sup>92)</sup>, 남대우<sup>93)</sup>, 정상규<sup>94)</sup>, 김형두<sup>95)</sup>가 그들이다. 특히 신고송은 여러 투고 활동 끝에 1927년 2월

88) 합천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신소년』(합천, 야로, 삼가)과 마찬가지로 읍과 삼가(가회, 삼가) 지역에 셋이나 지분사를 두고 있다.

89) 『별나라』에서도 소극적이긴 했으나 『현상당선거발표』가 있었다. 따라서 그 명단의 지역적 분포나 옹모율을 빌려 『별나라』의 향유층에 대한 소지역적 통계를 이끌어 낼 수 있겠다. 그러나 『별나라』의 경우는 조사 결과 경남·부산지역 응모 당선자가 많지 않다. 창간 당시 1927년 7월에서 1929년 6월까지 3년에 걸친 당선자 명단은 부산·울산·마산·함양·거제·김해에 걸쳐 1-5 차례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그 기간 고성에서 47회나 잦은 당선자를 내고 있는데, 이는 한 두 차례의 투고가 급격히 많아져 말미암은 것으로 통계로서는 뜻이 없다.

90) (창작동요) 울산 徐旅松 『썩난별이요』, 1927. 6, 78쪽; (독자사건대모집), 1927. 6; (5월호현상발표), 1927. 6, 44쪽; (6월호돌마지현상당선거발표), 1927. 8.

91) (사고) 별나라 합천분사 분사장, 1927. 7.

92) (추천시) 동요 『자장노래』, 1927. 8, 37쪽.

93) (전품접수월보), 1927. 6, 94-95쪽.

에는 『별나라』에서 동요 추천을 받아 드디어 기성 대접을 받기에 이른다. 이들에 대한 진입 장벽은 높지 않았던 셈이다. 따라서 소년문사와 달리 초기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 기성문인의 집필 활동을 『별나라』에서 볼 수 없다는 사실은 세대로건 이념이건 『별나라』가 지닌 변별점을 새삼스럽게 짐작하게 한다.

그렇다고 『별나라』가 카프의 공식 기관지였다는 확증은 보이지 않는다. 카프 안쪽에 아동문학 분과가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리고 카프의 변모 과정에서 계급적 아동문학은 소장파의 주도권 확보나 세대교체 욕구와 맞물려 있었다. 누구보다 카프 내부의 쇄신 욕구와 희망을 숨기지 않았던 계층이 아동문학 영역 쪽 젊은 문인이었다. 그들의 대종은 1920년대 후반에 투고문단을 빌려 자생적으로 자란 계급문인이었다.<sup>96)</sup> 카프 지도부에서 볼 때 아동문학 쪽의 움직임은 당연히 새로운 내부 종파 문제였던 셈이다.

계급주의 아동문학인의 활동은 카프 내부를 향한 도전과 시대 현실을 향한 도전이라는 두 개의 당면한 적을 향한 매체 투쟁이라는 성격이 짙었다.<sup>97)</sup> 경남·부산지역 문학인이 그러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안고 뒹굴게 된 때는 엄홍섭이 『별나라』 편집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하던 무렵부터다.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엄홍섭의 글이 처음으로 『별나라』에 발표된 것은 1929년 5월이다.<sup>98)</sup> 이로 미루어 보아 그 앞뒤 시기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엄홍섭이 진주 근교의 교사 생활을 접고 서울로 올라온 뒤, 전업작가로서 카프에 들어가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펼치기 시작하던 때다.<sup>99)</sup>

94) (봄의 찬미) 『금방울소리』, 1929. 5, 60쪽.

95) (3월현상발표), 1927. 5; (독자사진대모집), 1927. 6; 전시품접수월보 1회, 1927. 6; (6월호돌마지현상당선발표), 1927. 7.

96) 자생적 계급주의 문학인의 성장과 그들에 의한 세대갈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경남지역 계급주의 시를 대상으로 삼은 아래 글에서 이미 짚은 바 있다.

박태일, 『경남지역 계급주의 시문학 연구』, 『어문학』 80집(한국어문화회, 2003).

97) 그러한 움직임이 자연스레 드러난 일이 『음악과시』~『탈간과 『군기』'자건, 그리고 '푸로레타리아동요집 『불별』의 공간이다.

98) 엄홍섭, 『갈넛배』, 1929. 5월.

99) 엄홍섭의 이 무렵 사정에 대해서는 이희환에 미룬다.

이희환, 『엄홍섭과 인천에서의 문화운동』, 『한국학연구』 12집(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3), 170-173쪽.

따라서 1929년 무렵부터 김병호·이구월·손풍산의 글이 『별나라』를 채우기 시작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변화다. 왜냐하면 그들은 엄홍섭과 같은 경남도립 사범학교 출신이거나, 진주지역을 중심으로 일찌감치 엄홍섭과 호흡을 맞추며 습작활동과 매체 발간 활동을 벌였던 연고 시인이었던 까닭이다.<sup>100)</sup> 또한 매체 발간에 열성적이었던 함안 양우정이 거들고 강로향이 뒤에서 밀면서 『별나라』의 필진은 아연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인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엄홍섭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집결과 응집 현상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1930년 7월호 『별나라』의 짜임이다. 기성문인·소년문사할 것 없이 경남·부산 지역문인들이 태반을 차지하고 있다.<sup>101)</sup>

경남·부산지역 신예 문인들의 위상은 그뒤 『별나라』에서 더욱 커져갔다. 그들의 주요무대로서 『별나라』가 겪었을 출판상의 어려움과 반비례하는 모습이다. 1931년 9월의 사고는 그 결정판과 같다. ‘전조선소년소녀현상대모집’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선고선생’으로 미리 손풍산·엄홍섭·김병호·이구월·이주홍을 예고하고 있다.<sup>102)</sup> 거기에 편집진이었던 박세영·안준식·송영이 ‘선고선생’을 거들고 있다. 『별나라』 편집실과 경남·부산지역 신예 아동문학인 사이의 굳은 믿음과 결속의 고리를 쉽게 엮볼 수 있는 자리다. 『별나라』의 주요 필진이었던 권환·신고송·양우정·강로향만이 뒤로 이름을 빼고 있을 따름이다.

100) 그 대표적인 것이 1928년 진주에서 나온 『신시단』이다. 이에 대해서는 강희근이 일찌감치 문헌지를 밝혔다. 이즈음 이희환은 『신시단』과 1927년 인천에서 간행된 월간 순문예지 『습작시대』와 있었던 지역 수평연대의 문체를 암시하는 글을 내놓고 있다. 이밖에 경남도립사범학교 안에 『학우문예』라는 문예지나 『비봉지연』과 같은 교우지가 있어 그들의 습작 활동을 북돋웠다. 이들 사이의 교분 관계와 학연에 대해서는 박태일을 참조 바란다.

강희근, 「신시단 연구」, 『우리 시문학 연구』(예지각, 1985), 207-223쪽; 이희환, 「엄홍섭과 인천에서의 문화운동」, 『한국학연구』 72집(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3), 175-177쪽; 박태일, 「경남지역 계급주의 시문학 연구」, 『어문학』 80집(한국어문학회, 2003).

101) 손풍산, (소설) 『구리쇠명함』(2-4쪽); 양우정, (수필) 『굴개는 소녀들』(11-13쪽); 신고송, (신동요대특집), 『바다의 노래』(14쪽); 김병호, 『바다의 아버지』(15쪽); 엄홍섭, 『서울의 거리』(24쪽); 이구월, 『조심하십시오』(24쪽); (6월호현상발표) 남해 최중봉, 남해 김중곤; (독자작문) 남해 박대영 『7월의 바다』(59쪽); (소년문예단체작품 : 동요특집) 남해소년문예사 정운환 「여름밤」, 1930. 7.

102) 『별나라』, 1931. 9.

이러한 정황 아래서 1920년대 중반 이후 투고문단을 꾸준히 거쳤던 진주의 정상규·손길상·이재표가 기성 대접을 받으며 『별나라』를 꾸미고 있고, 한 걸음 뒤에서 고성 김형두<sup>103)</sup>가 따르는 형국이다. 1930년대 『별나라』는 경남·부산 지역 문인들로 응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있었던 셈이다.

절쭈절쭈 절-꺄쭈바리님  
 엇지해서 한 다리가 업서젼서요  
 야들아 웃지마라 지금은 옛날  
 돈벌냐고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엔전에 치여서 끈혀젼단다!

- 김병호, 『절쭈바리』 가운데서<sup>104)</sup>

짜치가 짜짜 울음먼 울문  
 서울 간 언니가 오나 봐서  
 문중방 탁치고 나가 보면은  
 짜치만 짜짜 날녀서 가네

- 김형두, 『서울간 언니』 가운데서<sup>105)</sup>

1930년대 초반 경남·부산지역을 대표하는 아동문학가였던 김병호의 것과 그 뒤를 따르고 있었던 김형두의 동요다. 둘 다 삶의 어두운 곳을 드러내고자 한 날카로운 눈길에 당대 현실의 빈부·계급 문제에 대한 암시를 깊숙히 담았다. 이렇듯 계급주의 아동문학 안쪽에서 경남·부산 지역문인의 굳건한 응집력과 필진 포진은 이어서 마산의 연극영화인 강호가 기꺼이 삼화로 거들면서<sup>106)</sup> 더욱 다양하게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 아래서 새로운 소년문사들이 뜻을 같이하면서 어려운 시기의 『별나라』를 위한 안간힘을 그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위로 형 들을 나라 바깥의 광복항쟁 전선 어디론가 떠나 보내고, 누나 박차정 열사마저 중국 모래 먼지 속으로 전송하고 남은 수필가 박문하가 어렵사리 『별나라』 동래지사를 꾸리면서 자신의 첫 발표 작품을 올리

103) 김형두는 『별나라』에 1927년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꾸준히 투고문단을 활용하고 있다.

104) 『별나라』, 1930. 5권 2호, 6-7쪽.

105) 『별나라』, 1930. 5권 2호, 48쪽.

106) 강 호, (그림) 『소년 전령』, 1930. 10.

고 있는 일<sup>107)</sup>은 예사롭지 않다.

수동아 복순아  
떠여 오너라  
지계를 진 체  
떠여 오너라  
우리들의 색기기차  
떠나간다  
지계꾼의 우리 동무  
가덕 실고서  
띠띠 칙칙 칙칙 쿡!  
다업의 가는 곳은  
대판이라내

-(불명)-

한 조각의 싹뚱에  
팔닌 놈되여  
원종일을 소와 같이  
일하고 잇는  
우리들의 형님들  
잇난 곳일세  
띠! 칙칙 칙칙 쿡!

× ×

폼팔이 간 어머니의  
것을 거리워  
배급하 우는 동생  
달내는 동무  
모다덜 이리로  
모혀 오너라  
우리들이 색기기차  
떠나간다  
띠! 칙칙 칙칙 쿡!

(색기기차라는 것은 농촌의 어린이들이 색기로 묶어서 그것을 기차라고 하며 타고 작란하는 것이다)

- 박문하, 『우리들의 색기기차』<sup>108)</sup>

107) “(사고) 동래지사 위치 경남 동래군 칠전동 319-1 구역 동래읍 지사장 박문하, 고문 박봉수”

『별나라』, 1933. 8.

108) 동래 박문하, (동요) 『우리들의 색기기차』, 『별나라』, 1934. 4, 46쪽.

어린 나이에 걸맞지 않게 철든 눈길이다. “한 조각의 싹돈에/팔닌 놈되여/원종일을” 먼 이국에서 “소와 같이/일하고 있는/우리들의 형님들”을 떠올리거나 “품팔이 간 어머니” 대신 “배꼽하 우는 동생”을 “달내는 동무”에게 “모다덜” “모혀” “색기길차”를 타자라 외쳐대는 목소리에는 아연 나이답지 않은 격렬한 속내가 담겨 있다.

『별나라』는 한국 계급주의 아동문학의 보고다. 그 활동과 변화 과정, 인물들을 소롯이 담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인의 절대적인 비중과 이바지를 볼 수 있다. 이들은 색동회 회원들로 구성된 1920년대 초반 세대와는 절연한 채, 지역 안팎으로 서로 수평적 연대를 강화시키면서 투고 문단을 빌려 문학적 자질을 키우다가 20대의 의욕적인 신예 문학인으로서 아동문학의 앞자리에 나섰다. 권환과 이주홍·신고송이 먼저 서고, 그 뒤를 엄홍섭·김병호·손풍산·이구월·양우정이 잇고 있다. 이어서 강로향과·박대영·손길상·정상규·이재표·남대우가 따른다.

앞의 신고송과 뒤의 몇 사람을 제쳐두고 보면, 이들은 모두 『별나라』의 중심 필진으로서 『신소년』을 제외한 『어린이』나 『아이생활』에는 두고·기고를 하지 않았던 이다. 그만큼 이들의 등장과 활동에는 지역적·이념적 경계가 뚜렷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신소년』의 이주홍과 마찬가지로 엄홍섭이 큰 작용점이었다. 뒤선 무리는 대부분 1920년대 중반부터 소년회 조직을 빌려 문학적 자질을 키우던 사람들로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죄 기성문인으로 얼굴을 바꾸면서 『별나라』의 필진으로 자라난 이다.

따라서 『별나라』는 지역적·이념적 경계로 말미암아 필진 구성에 있어서 매체 안쪽을 향한 응집력과 매체 바깥을 향한 배타성이 두드러진 특성을 드러낸다. 그런 만큼 주요 필진의 진폭이 넓지 않고, 고정 필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이것은 계급주의 아동문학 내부의 선명성을 위한 경계 지우기의 결과이기도 하면서, 나라읽은시기 어려운 정세 아래 이들이 겪었을 외부적 압력과 긴장에 대한 연고문학적 대응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별나라』는 한국 아동문학사뿐 아니라, 경남·부산 지역문학인의 조직적이고도 강도 높은 이념과 매체 투쟁에 몸 바친 흔적을 온몸에 아로새기고 있는 뜻있는 장소라 하겠다.

## V. 『아이생활』과 종교경계

『아이생활』은 1926년 3월부터 1944년 4월까지 통권 218호가 나온 나라잃은 시기 최장수 월간 아동잡지다. ‘조선주일학교연합회’에서 낸 여러 간행물 가운데서 어린이에게 읽힐 목적으로 낸 교육잡지였다. 발행소는 조선주일학교연합회 아이생활사다.<sup>109)</sup> 『아이생활』은 기독교계의 지원을 받고 있었음에도, 출판사정의 어려움은 다른 아동잡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34-1935년에 들어서면서 『어린이』·『신소년』·『별나라』가 매체 안팎의 사유로 모두 정간에 이른 시기, 『아이생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sup>110)</sup>

『아이생활』의 운명은 어두웠으나, 뉴욕부인회와 캐나다선교부에서 원조금을 다시 받아 정간의 위기를 모면하였다.<sup>111)</sup> 그렇다고 이른바 조선총독부의 감시마저 벗어날 수는 없었다. 1933년 7월호와 1934년 7월호, 그리고 1936년 8월호와 같이 몇 차례 압수를 당하는 고비가 있었다. 나라잃은시기 막마지인 1942년 8월 한석원으로 편집겸 발행인이 바뀐 뒤부터 편집이 단조로워지고 책의 부피도 얇아지기 시작한다. 또한 본문에 일문으로 된 글의 비중이 차츰 높아졌다.

109) 처음 이름은 『아희생활』이었다. 제5권인 1930년부터 『아이생활』로 바꾸었다. 정인과(鄭仁果)가 오래도록 책임을 맡았다가 나라 사정이 더욱 어려워졌던 1942년 8월부터 한석원으로 바뀌었다. 노고수는 1944년 1월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되었다고 적고 있다. 글쓴이 또한 1944년 1월호까지 확인하는 데 그쳤다. ‘조선주일학교 연합회’는 1922년 11월 1일 서울 성서공회 회의실에서 장로교·감리교 두 교파의 한국 교회 대표와 선교부 대표를 비롯한 10개 단체 대표가 모여 만든 조직이다. 거기서는 교회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여러 출판 사업을 벌였다. 그리하여 1923년 10월부터 『주일학교 통신』을, 1925년 7월부터 『주일학교잡지』를 펴냈다. 1928년에는 『주일학교 신보』를 내기도 했다. 1930년에는 『주일학교잡지』를 그만 내고, 본격적인 교육 잡지로 『종교교육』을 내기 시작했다. 『아이생활』은 그런 가운데 어린이에게 읽힐 잡지로 1926년 3월부터 마련된 것이다. 1920년대는 기독교 쪽에서 보면 ‘교육도서 출판시대 또는 교육잡지 출판시대’라 일컬을 만큼 많은 출판 활동이 이어졌던 시기다. 노고수, 『韓國基督教書誌研究』(예술문화사, 1981), 105-106쪽; 윤병춘, 『한국 기독교 신문·잡지 백년사』(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62-63쪽·162쪽.

110) 1935년 들어 인쇄비가 배로 오르고 광고료 수입이 크게 줄어든 데다 같은 해 10월 2일 예수교서회의 보조금과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오던 후원금도 끊어진 데 따른 재정난이 가장 컸다.

111) 윤춘병, 앞서 든 책, 166쪽.



부왜 아동문학 작품도 버젓이 내놓기 시작했다. 『아이생활』은 왜곡된 모습이나  
 마 1944년 4월까지 어렵사리 제 몸을 버텼다

초기 집필동인은 이광수·이운재·백낙준·주요한·주요섭·전영택·방인근  
 ·유도순·이용도·고장환에다 선교사 반우거(班禹巨)·소안론(蘇安論)<sup>112)</sup>이었  
 다. 경남·부산 인사로서는 김해의 이운재가 유일하게 집필 동인이었는데, 4대  
 주간을 맡았다.<sup>113)</sup> 『아이생활』은 많은 아동문학가를 배출했다. 박목월·윤석중·  
 윤복진·송창일·강소천·김영일의 성장에 『아이생활』은 결정적인 매체였다.

### 1. 향유 기반의 열세

『아이생활』은 소년들을 상대로 한 기독교 주일학교가 그 터다. 따라서 주일  
 학교가 마련되어 있는 경남·부산지역 교회 안팎의 어린이들이 주로 『아이생  
 활』의 현실독자였을 것이다.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매체는 아니었음직하다.  
 보기를 들어 『어린이』나 『신소년』에 주요한 소년 투고문사로 활동했던 이성  
 흥·서덕출·신고송과 같은 이들은 『아이생활』에 얼굴을 내밀지 않는다.<sup>114)</sup> 이  
 점은 발간 초기 3년 동안의 독자투고와 작품 게재 상황을 살펴보면 쉬 알 수  
 있는 일이다.

마산은 김성복<sup>115)</sup>의 4회와 이원수의 2회를 비롯하여 7인이 모두 12회를 투고  
 하고 있다. 통영은 은봉 7회, 이승원 7회, 이상조 2회를 비롯해 다섯 사람의 18  
 회 투고 결과를 보인다. 진주는 진주기독교청년회 박은주 2회, 정상규 2회, 이재  
 표·김형두 1회를 비롯해 모두 여덟 사람의 11회 투고 결과를 나타낸다. 부산  
 은 이영한 3회를 중심으로 네 사람이 6회 투고를 보인다. 나머지 지역은 의

112) 이봉희, 『한국 기독교문서 간행사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7), 52쪽.

113) 1930년 2월에서 그해 8월까지 일했다. 그 앞은 전영택이 그 뒤는 주요한이 주  
 간을 맡았다.

『본지창간십주년기념』, 『아이생활』, 1936. 3, 부록 14쪽.

114) 다만 서덕출의 경우, 한 차례 동요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투고에 따른 신작 게  
 재가 아니고 ‘소녀극’ 『물깃는 처녀』의 대본 속에 끼어든 것을 따로 본문에 빼어  
 내 소개하는 수준이다.

(요·곡) 徐德出, 『물깃는 처녀』, 『아이생활』, 1934. 5, 1쪽.

115) 창원 김성복으로 1회 발표하고 있어 마산으로 이주했거나, 통학 학생으로 여겨  
 진다.

령·산청 단성·함안·창원·밀양·거창이 3회에서 1회에 걸친 투고 경향을 나타낸다. 진주·통영·부산과 같이 일찍부터 근대화의 세례를 받았던 큰 도시의 참여가 높다. 다른 여느 매체보다 정간된 경우가 적었던 『아이생활』로서는 독자 투고의 지역 분포가 매우 협소하고, 특정 지역에 비중이 쏠리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활동하고 있는 경남·부산지역 소년문사의 절대수가 적다. 이러한 점은 『아이생활』의 주류적 향유층을 이루고 있는 경기·평안도 쪽의 적극적인 투고 활동과 견주어보면 금방 드러나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투고 경향이 『아이생활』~향유층의 전반적인 성향이라고 단순화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럼에도 『아이생활』의 지사 설립 현황과 함께 놓고 살펴보면 경남·부산지역에서 『아이생활』의 유통은 매우 한정적인 장소에서 한정적인 인원을 상대로 이루어졌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왜냐하면 경남·부산지역에서 『아이생활』~지사는 현재 모두 열두 곳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16)</sup> 『신소년』~지분사가 스물한 곳이나 널리 밀도 높게 확인되는 점과는 뚜렷이 나뉜다.

이미 교회라는 굳건한 터, 종교적 경계가 뚜렷한 마당에 굳이 지사 설립을 서두를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해명으로는 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아이생활』은 출판자본의 뒤통이로 볼 때 태생적으로 상업 매체와 같은 논리에 내맡길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기독교 교계라는 안정된 토대와 주일학교 구성원이라는 단단한 수요층을 겨냥하면 될 일인 까닭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1936년 현재 『아이생활』~지국이 '조선내'에 이백오십 곳에 이른다는 통계에 이르러 설득력을 잃어버린다. 『아이생활』에서 지국 설치와 그 운영은 매우 중핵적인 사항이었다.<sup>117)</sup>

116) 진주지국(1932. 7), 동래지국(1932. 7), 김해지국(1932. 8), 함안 군북지국(1932), 사천 삼천포지국(1933. 5, 1928년 8월 현재 마산 호신학교의 열여섯 살 학생이었던 고광모가 스물한 살에 지국을 만들), 하동 고전지국(1933), 하동지국(1935. 6), 거창지국(1935. 6), 마산지국(1936. 12, 이일래 지국장), 부산지국(1933. 1, 지국 이동), 통영지국 임원교체(1927. 10), 창원 남면지국(1933. 3, 지국 폐쇄).

117) 그에 따른 상세한 규약과 특파원 제도에 대해서는 『본지창간십주년년감』에 꼼꼼하게 소개하고 있다.  
『본지창간십주년년감』, 『아이생활』~1936. 3, 부록 15-18쪽.

따라서 종교 매체였다는 뒤편이로 경남·부산지역에 『아이생활』의 향유 활동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사실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그것은 창간 초기부터 1929년 현재까지 『아이생활』의 ‘사우(社友)’, 곧 주주들의 명단을 살펴보면 매우 극명하게 드러난다. 주식 수는 아예 문제 삼지 않더라도, 전체 824명의 주주 가운데서 경남·부산지역 주주는 모두 5명에 지나지 않는다.<sup>118)</sup> 또한 도별 독자 통계가 그 점을 더해준다. 1936년 3월 현재 20000여명에 이르는 독자 가운데서 경남·부산은 겨우 800명 남짓을 넘지 못한다. 경기도가 3000명을 넘고 평남이 2200명 정도에 이르는 상황 아래서 경남·부산은 서점판매 부수, 선금독자 부수, 그리고 지국부수, 어느 곳에서도 앞에 나설 자리가 없이 뒤로 밀려난다.<sup>119)</sup> 『아이생활』의 종교적 기반조차 지역 안에서는 바탕에서부터 미약했던 셈이다.

게다가 통계에 따르면 경남·부산지역 안에서 『아이생활』의 지사 설치는 크게 보아 1932년 7월 무렵부터 시작하여 1937년 무렵까지 한정적인 특성이 강하다. 1920년대 중반 이후 1930년대까지, 대사회적·이념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컸던 『어린이』·『신소년』·『별나라』와 같은 매체가 활발한 지분사 설립을 이루어나갈 무렵에는 지사 설립이 활발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들 매체의 안팎 환경이 급격히 어려워져 사활을 건 고통이 따르던 시기부터 『아이생활』의 조직은 도리어 경남·부산지역에서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셈이다. 『아이생활』이 지닌 탈사회성까지 조심스럽게 점쳐 보게 하는 사실이다.

## 2. 진입 장벽과 점적 진퇴의 문제

경남·부산지역 차원에서 『아이생활』의 필진 참여는 기성문인·투고문인 할 것 없이 미미한 쪽이다. 기성 아동문학인으로서는 이윤재<sup>120)</sup>와 이은상<sup>121)</sup>이 연

118) 「본지창간십주년기념, 『아이생활』, 1936. 3, 부록 6-12쪽.

119) 「본지창간십주년기념, 『아이생활』, 1936. 3, 부록 18쪽.

120) (한글독본) 『애씀(2)』, 1929. 2, 22-25쪽; (한글독본) 『시계』, 1929. 3, 29-35쪽; (한글독본) 『서경덕 어른(1)』, 1929. 4, 14-17쪽; (한글독본) 『꿀벌』, 1929. 7, 23-26쪽; (한글독본) 『경안 정서방』, 1929. 8, 23-27쪽; (한글독본) 『김덕령 장군의 날램』, 1929. 10, 20-21쪽; (조선지리독본) 『1 화려강산』, 1934. 1, 16쪽; 『새해 특별 부록 한글 마춤법』, 1934. 1, 55-60쪽; (조선지리독본) 『조선의 산과 강 2』, 1934. 9, 22-23쪽.

재를 맡아 얼굴을 톸툸이 내밀었을 따름이다. 전문 창작으로서의 정인섭이 ‘동극’을 한 차례 올려 회소가치를 높였다.<sup>122)</sup> 손진태는 이름조차 찾을 수 없다. 최현배·유치진·이극로가 한두 차례 이름을 올리고 있으나, 죄 의례적인 글자리다.<sup>123)</sup> 그런데 이운재는 『아이생활』의 네 번째 주간으로서 주요 집필동인 가운데 한 사람이고, 이운상은 그의 오랜 제자였다. 『아이생활』 편집 상층부에 경남·부산지역 문학인의 참여가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음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렇듯 빈한한 참여 양상은 기성문인뿐 아니라, 투고문단의 소년문사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발간 초기 세 해 동안 다른 매체에 투고 사실이 없이 오로지 『아이생활』에서 만 문인으로 대접을 받고 있는 이가 통영의 이승원이다.<sup>124)</sup> 그는 『아이생활』 통영 특파원으로 일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글쓰기에 얼굴을 내밀고 있다. 그러나 전문 문학가로서 성장한 모습을 그 뒤에 보여주지 못했다. 『어린이』·『신소년』과 같은 매체에 투고를 거듭하여 소년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서 『아이생활』에 얼굴을 내민 이는 발간 초기 세 해 동안 이원수·김형두뿐이다. 이들도 한 두 차례 투고에 그칠 뿐 『아이생활』을 적극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sup>125)</sup> 그 뒤에도 경남·부산지역 소년문사들의 이름은 잘 보이지 않는다. 1929

121) (3주년기념을 당하여 조선의 어린이들에게) 『『통소』의 교훈』, 1929. 3, 24-26쪽; 『조선아동문학』(1), 1931. 8, 10-12쪽; 『조선아동문학』(2), 1931. 9, 49-51쪽; 『조선아동문학』(3), 1931. 10, 34-35쪽; 『朝鮮兒童文學』(4), 1931. 12, 44-45쪽; 『朝鮮兒童文學』(5), 1932. 2, 38-39쪽; 『조선아동문학』(6), 1932. 5, 12-13쪽; (아버지를 사모하는 딸과 아들의 마음) 『가신지 십 년 된 오늘』, 1932. 5, 27-28쪽; (소년독본 제1과) 『잉어잡던 늙은이』, 1937. 1, 16-17쪽.

122) 정인섭, (창작동극) 『맹꽂이』, 『아이생활』, 1937. 6, 10-13쪽.

123) 유치진, (느끼었던 성경 한 장면) 『아이스케이키와 한박꽃』, 1937. 7·8, 18-19쪽; 이극로, (새해부탁), 1939. 1월호, 15쪽; 유치진, (설문특집) 『매해 사진 한장식을』, 1935. 6, 4쪽; 최현배, 『운동에 힘쓰고 동무를 사귀 주세요』, 같은 책, 5쪽.

124) 『어린 동모들께』, 1928. 4, 5-6쪽; (사고) 『본사특파원』, 1928. 5, 70쪽; 『朝鮮詩』, 1928. 6, 14쪽; (笑科大學) 『영리한 權濟』, 1928. 9, 47쪽; (史談) 『천고에 두문 삼손의 괴력』, 1928. 9, 64-66쪽; 『少年電氣工學家 李相鳳君을 紹介하면서 付託一言』, 1928. 11, 30-36쪽; 『세계에서 섰는 크리스마스의 략사(畧史)』, 1928. 12, 6-11쪽.

125) 이원수는 『어린이』, 『신소년』뿐만 아니라, 『아이생활』에서도 투고를 그치지 않고 있어 빈도는 높지 않지만 매우 집요한 발표욕을 보여주고 있다. 1926년 3

년부터 1930년까지 진주의 정상규·이재표·손길상만이 딱 매체의 경우와 다름없이 한 시기 작품 발표를 하고 있다.<sup>126)</sup>

『아이생활』은 당대 아동문단의 혼란과 노선 갈등으로부터 비교적 거리가 있었다. 거기다 기독교 주일학교와 교계라는 남다른 제도적·재정적 배경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미 대륙침략의 이른바 병참기지를 피하고 있었던 조선총독부의 책략과 감시 아래서는 발전을 내다볼 수 없었다. 하지만 『어린이』·『신소년』·『별나라』가 매체 안팎 요인에 따라 자의건 타의건 마침내 정간에 이르게 된 1930년대 중반에 『아이생활』은 다시 몸을 일으켜 최장수 아동잡지로 자리를 더욱 굳혔다. 『백두산』·『소년중앙』·『동화』·『소년』과 같은 아동매체가 새로 발간되기 시작했던 전형기였음에도 위상은 달라짐이 없었다. 주도 필진 구성에서도 큰 틀은 바뀌지 않았다. 이런 점들이 『아이생활』의 장점이자 한계였다.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으로 볼 때는 중요한 작가의 출현이나 성장의 밑받침이 되는 결정적 이바지로부터 끝내 거리가 있었던 셈이다.

다만 몇몇 발표 욕구가 남다른 작가나 기독교 성향에 기울어진 기성작가가 발표 매체로서 나라읽은시기 끝자리까지 『아이생활』을 간간히 활용하였을 따름이다. 『아이생활』·마산 지사장을 거쳤던 이일래<sup>127)</sup>나 김대봉<sup>128)</sup>과 같은 시인의 작품 발표가 좋은 본보기다. 맹렬한 창작력을 보여주었던 남대우<sup>129)</sup> 또한 가끔 『아이생활』을 이용했다. 그리고 그 막바지 뜻밖에 이원수가 남대우·염주

월부터 1929년 2월까지 발간 초기 3년 동안 모두 2회에 걸친 투고를 보인다. 진주 김형두는 1회 투고를 보여준다.

이원수, (어린 가단) 『문안』, 1926. 1권 9호, 39쪽; (自由論壇) 마산 이원수, 1927. 9, 35쪽; 진주 김형두, (동시) 『움겨가는 배다리』, 1927. 7, 54쪽.

- 126) (독자문예) 진주 새책사 李在杓, (당선가요) 『눈사람』, 1929. 3, 84-85쪽; 진주 鄭祥奎, 『봄』, 같은 책, 85쪽; 진주 정상규, 『동요일기』, 같은 책, 87쪽; (어린 가단) 진주 손길상, 『지는 꽃』, 1929. 9, 33쪽; 진주 새협사 정상규, 『일허진 배』, 같은 책, 34쪽; (어린 가단) 진주 정상규, 『아츨』, 1929. 10, 33쪽; (자유논단) 진주 정상규, 『글쉴 동모여 자각하라』, 같은 책, 71쪽.

127) 이일래 율김, 『악보 ‘크리스마스 의 별’』, 『아이생활』, 1937. 12, 8쪽.

128) 『남쪽바다』, 1932. 4, 51-52쪽; (노래) 『꽃노래』, 1932. 7, 40쪽; (동요편) 『못속에는』·『물레방아』·『고향에 보내는 노래』, 1932. 8, 16-22쪽.

129) (동요) 『산으로 드을로』, 1939. 6, 16-17쪽; (동요) 『이라낄낄 이 소야』, 1940. 8, 28-29쪽; (동요) 『佛日瀑布』, 1943. 1, 29쪽; 『雙磎寺』, 같은 책, 30쪽.

용<sup>130</sup>)과 나란히 얼굴을 내밀어 이채를 띤다. 한국 근대 아동문학인의 많은 수가 시대의 어지러움을 좇아 왜로의 것으로 갈아 치운 자신의 새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이른바 ‘소국민문학’으로 우리 아동문학이 완전히 재편된 자리였다.

달 달 달 달  
어머니가 돌리는  
재봉소리 들으며

저는 먼저 잡니다.  
어머니도 어서  
주무세요, 네.

밤중에 잠이 깨면  
달 달 달 달  
아직두 어머니는 안 주무시고  
밤중까지 썩바누질 하시는구나

달 달 달 달  
『왜 잠 깬니  
어서 자거라.  
어서 자거라.』

재봉 소리와  
어머님의  
고마우신 그 말씀  
잠이 들면 꿈속에도  
들리웁니다.

- 이원수, 『어머니』 가운데서<sup>131</sup>)

문제작이어서 굳이 올렸다. 어느덧 어머니에 대한 자식의 사랑이라는 보편 윤리와 왜로 제국주의의 태평양침략전쟁기 이른바 ‘총후’(후방) ‘봉공’의 한 덕목으로서 모성의 희생에 대한 강조·찬양이라는 두 자리 사이에 이원수가 위

130) 이원수, (동요) 『어머니』, 1943. 9, 17-18쪽; 남대우, 『산울림』, 같은 책, 19쪽; 염주용, (가을수필) 『오동나무 선 골목』, 같은 책, 11-12쪽.

131) 이 작품은 『밤중에』로 제목을 고치고 본문을 크게 손질해 1948년 『아동문화』에 다시 실었다.

태롭게 놓여 있음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제껏 살펴본 바와 같이 『아희생활』은 앞서 든 『어린이』나 『신소년』, 그리고 『별나라』와 매우 다른 모습을 드러낸다. 첫째, 기성문인이든 소년문사든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인의 참여가 드물고 향유의 밑자리가 넓지 못하다. 이 점은 『아이생활』이 경기도·평안도 쪽에 바탕을 둔 기독교계 잡지였다는 특성에 말미암은 바 크다. 상대적으로 경남·부산지역에서 『아이생활』에 대한 참여와 관심은 비교될 만하다. 그리하여 1920년대 후반부터 『신소년』, 『별나라』가 경남·부산지역의 주류 아동매체며 소년 조직의 배경으로 등장하자 『아이생활』의 비중은 더욱 협소해졌다. 다양하고 활발했던 1920년대 경남·부산지역 투고문단의 소년문사들은 이원수를 비롯한 몇몇을 제외하고는 『아이생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다만 통영의 이승원이나 진주의 정상규, 손길상, 이재표와 같은 이들이 눈에 뜨인다.

1930년대에 들어서 이러한 사정은 더욱 심화되어, 기독교계에 몸을 담았던 이일래나 김대봉과 같은 사람의 작품을 드물게 볼 수 있을 따름이다. 『아이생활』의 부진한 참여는 같은 영남권에 속하면서도 기독교계인 계성학교 출신 윤복진·박목월의 활발한 참여가 이어졌던 경북·대구지역의 모습과는 사뭇 맞서는 지역 특성이다. 계급주의 아동문학의 주요한 터였던 경남·부산지역에서 『아이생활』은 매체 그 자체의 뒷됨이로 말미암은 종교경계뿐 아니라, 지역적·이념적 풍토에 의해 아연 활동이 위축된 모습이다. 지역문학인 안쪽에서도 서로 연결고리가 없이 점적 진퇴를 거듭했을 따름이다. 이런 사정은 1930년대 중반 이후 앞선 주도 매체들이 죄 정간된 뒤에도 나아지지 않아,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발흥과 성장에 있어서 『아이생활』은 한결같은 한계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 VI. 마무리

한국 아동문학을 문학사회의 한 자리로 앉힌 데에는 각급 학교 교육뿐 아니라 신문·잡지와 같은 근대 매체가 필수적이었다. 『어린이』·『신소년』·『별나

라』·『아이생활』은 1920-1930년대 우리 근대 아동문학의 자리를 넓히고 다져준 대표적인 아동 전문지다. 본고는 이 네 매체를 대상으로 경남·부산 지역문학 관련 일차 문헌 사항을 따로 갈무리하여 죽보기를 만든 뒤, 그것을 바탕으로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형성과 전개에 관련된 유의미한 맥락을 찾아보고자 하는 목표 아래 쓰여졌다. 이를 위해 개별 매체별로 제도화 장치 가운데서, 첫째 향유층이나 소년 조직활동, 둘째 작가의 인적기제나 드나듦과 같은 양상에 초점을 두고자 했다.

위에 든 네 매체 가운데서 가장 앞서 나온 것이 『어린이』다. 『어린이』는 색동회 회원 손진태·정인섭과 같은 기성문인과 투고문단 소년문사들의 요란스럽지 않으나 꾸준한 성장을 보여준다. 둘 사이의 수직·수평적 연대는 드러나지 않지만, 각별히 서덕출·이성홍·신고송·이원수·박석정·소용수와 같은 이들이 고른 분포를 보인 역내 소년회 활동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열성적인 소년문사에서 장차 경남·부산 지역 아동문학을 대표하는 중심작가로 커가는 모습을 『어린이』는 잘 담고 있다. 『어린이』는 좌·우 이념이나 천도교라는 종교의 장벽없이 기성문인·습작문인에 두루 걸치면서 1920-1930년대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형성과 정착을 뒷받침한 기간 매체로서 한결같았다.

『신소년』은 경남·부산지역의 밀도 높은 문화자본력을 잘 활용한 매체다. 발간 초기는 편집진과 걸린 소극적인 개인 연고가, 1929년 이주홍이 편집에 참여한 뒤에는 적극적인 지역 연고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역문학의 의의를 줄곧 대변한 매체다. 거기다 활발한 투고문단과 역내 모든 소지역에 고루 자리잡은 지분사 활동은 『신소년』에 대한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무게를 한껏 드높였다. 좌파 문인의 진입과 끊이지 않은 소년문사의 계발 또한 그로부터 가능했다. 따라서 필진의 다양한 진퇴에도 『신소년』은 창간 초기부터 끝자리까지 경남·부산 아동문학인의 성장 과정을 소롯이 담아낸다. 『신소년』이야말로 좌·우에 걸림 없이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형성과 발전에 결정적인 이바지를 다한 매체였던 셈이다.

『별나라』는 한국 계급주의 아동문학의 보고다. 특히 편집을 맡았던 엄홍섭을 고리로 삼아 김병호·손풍산·이구월·양우정으로 이어지는 지역 문인의 매체 진입과 활발한 활동은 『별나라』의 정체성을 결정적으로 다져준 일이다. 다



만 지역적·이념적 경계로 말미암아 매체 안팎으로 응집력과 배타성이 두드러지게 작용한 점이 있다. 소년회 지분사 활동은 전모가 죄 드러나지 않는다. 제대로 알기는 어렵지만 『신소년』 지분사와 함께 중층적 조직 운영 아래서 이루어졌을 유다른 열의만은 짐작한다. 이런 점에서 『별나라』는 계급주의 아동문학이 나라읽은시기 매체 안팎으로 겪었을 시대의 압력과 긴장에 대한 경남·부산 지역문학인의 조직적이고도 강도 높은 매체 투쟁의 흔적을 온몸에 아로새기고 있는 뜻 깊은 장소다.

『아이생활』은 나라읽은시기 가장 오래도록 나온 아동매체다. 그러나 기성문인이든 소년문사든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인의 참여는 한결같이 낮았다. 투고문단을 비롯해 향유의 밑자리도 단단하지 못했다. 경기도·평안도 쪽에 바탕을 둔 기독교 잡지라는 특성에도, 교계 안쪽 지원도 미약했다. 1920년대 후반부터 『신소년』·『별나라』가 경남·부산지역 안쪽의 주류 아동매체며 소년문에 활동의 거점으로 자리 잡아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비중은 더욱 낮아졌다. 게다가 진입 장벽까지 높아 이윤재·이은상과 같은 집필동인이나, 이승원·이일래와 같은 교계 안쪽 사람의 점적 진퇴만 두드러질 뿐이었다.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 속에서 종교경계뿐 아니라, 지연경계로 말미암아 한결 위축된 위상을 『아이생활』은 스스로 응변하고 있는 셈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의 네 매체는 그 나름의 유다른 면모를 보이면서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형성과 전개에 일정한 몫을 다했다. 전반적으로 문학인 내부의 세대간 연결은 엷었다. 그러나 투고문단의 많은 소년문사들은 활발하게 지역 안팎 연대를 거듭하면서 제 몫의 아동문학인으로 자라고 자리 잡아 나가는 꾸준한 모습을 보인다.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채로움이다. 매체와 매체 사이 진입 장벽은 비교적 뚜렷한 쪽이다. 『별나라』와 『아이생활』을 두 끝에 놓고 보면, 『별나라』·『신소년』/『신소년』·『어린이』/『어린이』·『아이생활』로 펼칠 수 있는 바와 같이, 흡인력과 반발력을 중심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문인의 매체 진출입 양상은 그 자체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응변하는 일이다.

그러한 지형 안에 이윤재·정인섭·손진태·김소운·이은상·양봉근에서부터 권환·이주홍·서덕출·이원수·이성홍·엄홍섭·신고송·손풍산·김병호

· 이구월 · 박석정 · 강호 · 탁상수를 거쳐 강로향 · 김대봉 · 이일래 · 남대우 · 소용수 · 김성봉 · 정상규 · 손길상 · 이재표 · 황대생 · 박대영 · 윤차룡 · 김재홍 · 김종대 · 이승원에 이르는 지역 아동문학인들이 대상 매체를 드나들면서 자신의 아동문학 세계 구성을 위해 고심했다. 이미 알려진 이들 뿐 아니라 새롭게 발굴되거나 조명을 기다리는 이들 또한 아동문학을 디딤돌로 삼아 아동문학 바깥으로, 또는 더욱 아동문학 속으로 나아가면서 우리 근대 겨레문학의 밑자리를 단단하게 다져준 크작은 보배들이다.

그리고 이 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망외 소득도 얻는다. 지역 중요 작가의 미발굴 작품 다수와 첫 발표 작품, 등단작 확인, 그리고 뒷날 문학과는 거리를 두었지만 지역 문화예술계 명망가의 습작품 발굴이다. 이극로 · 최현배 · 양달석 · 김형두 · 김형윤 · 염주용의 것을 들 수 있겠다. 경남 · 부산 지역문화의 밑자리를 든든하게 일깨워주는 흥밋거리로 새겨 둘 만하다. 나라잃은시기 서울 · 지역에서 나온 다채로운 중앙 일간지와 잡지 속의 경남 · 부산 아동문학, 일반 문예지나 기타 연속간행물 · 단행본 속에 담긴 경남 · 부산 아동문학, 게다가 일문으로 된 신문과 잡지 속의 것까지 따지려면 앞으로 할 일이 많다. 그 일을 위해 첫 삼을 뜬 형국인데, 어느새 바지계가 그득하다.

주제어 : 어린이, 신소년, 별나라, 아이생활, 지역문학, 아동문학, 경남 · 부산 지역문학, 이주홍, 엄홍섭

## 참고문헌

### 1. 일차 자료

- 『어린이』(개벽사), 1923. 3-1934. 2(보성사 영인본, 1977)  
『新少年』(신소년사), 1923. 10-1934. 4·5.  
『별나라』(별나라사), 1926. 6-1935. 1·2.  
『아이생활』(아이생활사), 1926. 3-1944. 1.  
『飛鳳之緣』(집)(경상남도도립사범학교교우회, 1925).  
『學友文藝』(집)(경상남도도립사범학교학우문예회, 1926).  
문명찬 엮음, 『朝鮮少年少女童謠集』(대산서림, 1926).  
신명균·맹주천, 『功든 塔』(신소년사, 1928).  
심의린, 『鑑賞材料 少年作文』(이문당, 1928).  
동래공립고등보통학교교우회, 『校友會報』(집)(동래공립보통학교, 1929).  
황석우 엮음, 『靑年詩人百人集』(조선시단사, 1929).  
마산공립상업학교교우회, 『會誌』(호)(마산공립상업학교, 1929).  
『音樂과詩』(창간호)(음악과시사, 1930).  
『불별』(중앙인서관, 1931).  
『群旗』(7월호)(군기사, 1931).  
『名簿』(동래공립고등보통학교, 1933).  
『會員名簿』(조선교육회, 1933).  
임화 엮음, 『現代朝鮮詩人選集』(학예사, 1939).  
『卒業生名簿』(마산공립상업학교 동창회, 1940).  
『배재동창회원명부』(배재동창회, 1941).  
『새동무』(창간호)(새동무사, 1945).  
『民友』(2호)(민우사, 1946).  
정태병 엮음, 『조선동요전집』(신성문화사, 1946).  
『학우회지』(창간호)(진주프린트사, 1947).  
『햇불』(우리문학사, 1945).

- 이홍규, 『南海郡郷土誌』(남해공립국민학교, 1948).
- 박삼성, 『統營地誌』(통영공립수산중학교, 1949).
- 안호승과 여럿 엮음, 『郷土와 人物』 ㄱ집(향사편찬회, 1953).
- 『會誌』 ㄱ호(진주사범학교동창회, 1953).
- 마산문화연감편찬위원회 엮음, 『1956 마산문화연감』(마산문화협의회, 1956).
- 마산문화연감편찬위원회 엮음, 『1957 마산문화연감』(마산문화협의회, 1957).
- 『동창회원 명부』(진주교육대학동창회, 1967).
- 김해군, 『郷土와 人物』(국제신보출판부, 1962).
- 김정명 엮음, 『朝鮮獨立運動Ⅳ - 공산주의운동편』(원서방, 1967).
- \_\_\_\_\_ 엮음, 『朝鮮獨立運動Ⅴ - 공산주의운동편』(원서방, 1967).
- 이주홍, 『激浪을 타고』(삼성출판사, 1976).
- 이주홍문학상운영위원회 엮음, 『이주홍의 문학과 인생』(세한, 2001).
- 계훈모 엮음, 『韓國言論年表 Ⅰ』(관훈클럽영신연구기금, 1979).
- \_\_\_\_\_ 엮음, 『韓國言論年表 Ⅱ』(관훈클럽영신연구기금, 1987).
- 단대출판부 엮음, 『빼앗긴 책』(단대출판부, 1981).
- 김정숙 엮음, 『조선문학작품선집』 ㄱ6(교육도서출판사, 1982).
- 남대우, 『우리동무』(정운, 1992).
- 류희정 엮음, 『1920년대시선(3)』(문예출판사, 1992).
- \_\_\_\_\_ 엮음, 『1920년대 아동문학집 (1)』(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 \_\_\_\_\_ 엮음, 『1920년대 아동문학집 (2)』(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 박태일, 『가려뽑은 경남부산의 시』 ㄱ『두류산에서 낙동강에서』(경남대학교출판부, 1997).
- \_\_\_\_\_ 엮음, 『김상훈 시 전집』(세종출판사, 2003).
- 『지역문학 발굴자료 『불별』(1931)』, 『지역문학연구』 8집, 경남·부산지역문학회, 2003.

## 2. 이차 자료

- 강만길·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창작과비평사, 1996).
- 강혜경, 『1930년대 후반 삼천포·왜관에서의 인민전선전술의 수용에 대한 연구

- \_(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 강희근, 『신시대 연구』, 『우리 시문학 연구』(예지가, 1985).
- 관복연, 『근대 아동문학 형성과정 연구』(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권영민, 『한국 계급문학 운동사』(문예출판사, 1998).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대사전』(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 김 승, 『1920년대 경남지역 청년단체의 조직과 활동』, 『지역과 역사』 2호(부산 경남역사연구소, 1996).
- 김동춘, 『1920년대 학생운동과 맑스주의』, 『역사비평』 6호(역사문제연구소, 1989).
- 김봉희, 『신고송의 희곡 ‘선구자들’ 연구』, 『지역문학연구』 7집(경남지역문학회, 2001).
- 김상옥, 『문화운동—충무·삼천포 지방』, 『경상남도지(중)』(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1963).
- 김성규, 『이원수의 동시에 나타난 공간구조 연구』(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 김성봉, 『화랑전기』(진주사범학교, 1946).
- 김용호 엮음, 『1947년판 예술연감』(예술신문사, 1947).
- 김인덕, 『신간회 동경지회와 제일조선인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7집(한울, 1997).
- 김정의, 『한국소년운동사』(민족문화사, 1992).
- \_\_\_\_\_, 『한국의 소년운동』(혜안, 1999).
- 김지은, 『한국 근대 현실주의 동시 연구』(경남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_\_\_\_\_, 『이주홍의 시 연구』, 『지역문학연구』 7호(경남지역문학회, 2001).
- 김중섭, 『일제하 3.1운동과 지역사회 운동의 발전-진주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학』 30집(한국사회학회, 1996).
- 김학렬,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운동 연구』(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6).
- 김형국, 『신간회 창립 전후 사회주의자들의 민족협동전선론』, 『한국근현대사연구』 7집(한울, 1997).

- 김형두, 『내가 본 世界』(국제신문사출판국, 1959).
- 노고수, 『韓國基督教書誌研究』(예술문화사, 1981).
- 박동규, 『이원수 동시 연구』(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박성식, 『1930년대 경남 학생운동』, 『진주지방의 제문제』(태화출판사, 1991).
- 박철규, 『해방 직후 부산지역의 사회운동』, 『항도부산』 22집(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1995).
- 박태일, 『지역문학 연구의 방향』, 『지역문학연구』 2호(경남지역문학회, 1998).
- \_\_\_\_\_, 『지역시의 발견과 해석 - 경남·부산지역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6집(한국시학회, 2002).
- \_\_\_\_\_, 『경남지역 계급주의 시문학 연구』, 『어문학』 80집(한국어문학회, 2003).
- 부산학생항일의거기념논집편찬위원회 엮음, 『부산학생항일의거의 재조명』(동래고등학교동창회, 1992).
- 서범석, 『우정 양우정의 시문학』(보고사, 1999).
- 서인균, 『조선 사회·민족운동의 회고』(시조사, 1945).
- 서중석, 『일제시대 사회주의자들의 민족관과 계급관』, 『한국민족주의론 III』(창작과비평사, 1985).
- 성 봉 엮음, 『한국현대문인요람』(유인본, 1954).
- 성대경 엮음, 『한국현대사와 사회주의』(역사비평사, 2001).
- 손영부, 『풍산 손증행 연구』, 『재부작고시인연구』(아성출판사, 1988).
- 송 영, 『신홍예술이 싹터나올 때』, 『문학창조』 창간호(별나라사, 1934).
- \_\_\_\_\_, 『프로예술운동소사 (1)』, 『예술운동』 창간호(조선예술연맹, 1945).
- 송연옥, 『1920년대 조선여성운동과 그 사상-근우회를 중심으로』, 『1930년대 민족해방운동』(거름, 1984).
- 송창우, 『경남지역 문예지 연구』(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 신고송, 『죽은 동지에게 보내는 조사』, 『예술운동』 창간호(조선예술연맹, 1945).
- 신동한, 『향파 이주홍론』, 『재부작가론·작품집』(한국문인협회부산지부, 1974).
- 안경식, 『소파 방정환의 아동교육 운동과 사상』(학지사, 1994).
- 엄홍섭, 『별나라의 거러운 길-별나라약사』, 『별나라』 해방속간 1호(별나라사, 1945).

- 역사문제연구소 엮음, 『카프 문학운동 연구』(역사비평사, 1989).  
\_\_\_\_\_ 엮음, 『민족해방운동사』(역사비평사, 1990).  
\_\_\_\_\_ 엮음, 『한국 근현대 지역운동사 I : 영남편』(여강, 1993).  
원종찬, 『이원수와 마산의 소년운동』, 『아동문학과 비평정신』(창작과비평사, 2001).  
윤병춘, 『韓國 基督教 新聞·雜誌 百年史』(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윤석중, 『우리나라 소년운동의 발자취』(웅진출판주식회사, 1988).  
이만렬,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대한기독교출판사, 1989).  
이봉희, 『한국 기독교문서 간행사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7).  
이상금, 『해방전 한국의 유치원』(양서원, 1995).  
이영상, 『부산·경남지방의 항일민족운동연구 - 1920-1930년대의 항일학생운동울 중심으로-』(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이장렬, 『권환 문학 연구』(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이재철, 『아동문학개론』(문운당, 1967).  
\_\_\_\_\_, 『한국 현대동시약사 소고』, 『학술논총』 2집(단국대학교 대학원, 1977).  
\_\_\_\_\_, 『한국현대아동문학사』(일지사, 1978).  
\_\_\_\_\_, 『한국아동문학연구』(개문사, 1983).  
\_\_\_\_\_, 『아동잡지 어린이 연구』, 『신인간』 4월호(신인간사, 1986).  
\_\_\_\_\_, 『세계아동문학사전』(계몽사, 1989).  
이재화, 『한국근현대민족해방운동사』(백산서당, 1988).  
이정식, 『어린이지에 나타난 아동문학 양상 연구』(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이주홍, 『문학』 『경상남도지』 중권(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1963).  
\_\_\_\_\_, 『부산 문단의 20년』, 『부산문예』 2집(예총부산지부, 1965).  
\_\_\_\_\_, 『부산문학사략』, 『부산문학』 6집(한국문인협회 부산지부, 1973).  
이주홍아동문학상운영위원회 엮음, 『이주홍 문학 연구』 1권·2권(대산, 2000).  
\_\_\_\_\_ 엮음, 『이주홍 문학 연구-작가작품론』(대산, 2000).  
이해문, 『중견시인론』, 『시인춘추』 2집(시인춘추사, 1938).

- 이현주, 『‘서울파’의 민족통일전선운동과 신간회(1921-1927)』, 『한국근현대사연구』 7집(한울, 1997).
- 이희환, 『엄홍섭과 인천에서의 문화운동』, 『한국학연구』 12집(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3).
- 정상희, 『풍산 손증행의 길』, 『지역문학연구』 7집(경남지역문학회, 2001).
- 정세현, 『항일학생민족운동사연구』(일지사, 1975).
- 정인섭, 『색동회 어린이 운동사』(학원사, 1975).
- 정진영, 『영남지역 지방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지방사와 지방문화』 1(학연문화사, 1999).
- 조동일, 『지방문학사』(서울대출판부, 2003).
- 조선총독부경무국 위음, 『고등경찰 용어사전』(조선총독부, 1935).
- 조웅대, 『진주연극사』(한국연극협회 진주지부, 2002).
- 지수걸, 『일제하 농민조합운동연구』(역사비평사, 1993).
- 차민기, 『박석정의 삶과 문학』, 『지역문학연구』 7집(경남지역문학회, 2001).
- 천도교청년회 중앙본부, 『천도교청년회팔십년사』(글나무, 2000).
- 최유리,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정책연구』(국학자료원, 1997).
- 최해균, 『풍산 손증행의 시적 배경』, 『부산문학』 5집(한국문인협회 부산지부, 1973).
- 한국역사연구회 1930년대 연구반, 『일제하 사회주의운동사』(한길사, 1991).
- 홍순권, 『1920년대 경남지방의 야학활동』(동아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 황공률, 『조선근대애국문화운동사』(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0).
- 『慶尙南道勢概觀』(경상남도, 1937).
- 『1957년 문화연감』(마산문화협의회, 1957).
- 조선총독부경무국 위음,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조선총독부, 1936).
- 스칼라피노·이정식(한홍구 옮김),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1-3(돌베개, 1987).
- 마리아 니콜라예바(김서정 옮김), 『용의 아이들』(문학과지성사, 2002).
- 대중총서편집부 위음, 『사회주의개론』(중앙인서관, 1931).
- 三田芳夫 위음, 『朝鮮に於ける國民總力運動史』(國民總力運動聯盟, 1945).



野口 隆 엮음, 『移民과 文化變容-韓國陝川地域の事例研究』(일본학술진흥회, 1976).

오오무라 마스오, 『<코프조선협의회>와 우리동무』, 『윤동주와 한국문학』(소명출판, 2001).

上笙一郎, 『兒童文學概論』(동경당출판, 1978).

福田清人·山主敏子 編, 『日本兒童文藝史』(삼성당, 1983).

松村武雄, 『童謠及童話の研究』(대판매일신문사, 1923).

미관암이, 『童心藝術概論』(문화서방, 1932).

아동문학자협회, 『兒童文學入門』(목서점, 1957).

福田清人 外, 『兒童文學概論』(牧書店, 1963).

<Abstract>

## Juvenile Literature in Kyungnam-Busan Region during the Colonial Period (before 1945)

Park, Tae-ill

This writing is objective to make a list of Kyungnam-Busan's regional literature based on the representative megazines for modern juvenile literature from 1920's to 1930's, that is, 『Children』(어린이), 『New Boy』(신소년), 『Starland』(별나라), and 『Boy's Life』(아이생활), and to find aspects of how juvenile literature was formed in Kyungnam-Busan region. To achieve the goals, it was focused on activity of the pleasuring classes or youth's organization and the admission system for writers.

『Children』(어린이) showed a consistent growth of the existing writers such as Son Jin-tae(손진태), and Jeong In-sub(정인섭) as well as young contributors. Although there was not found any relation between them, it included how Seoz Deok-chool(서덕출), Lee Seong-hong(이성홍), Lee Joo-hong(이주홍), Shin Go-song(신고송), Lee Won-su(이원수), and Park Seok-jung(박석정) were grown up as the main writers of Kyungnam-Busan region's juvenile literature by getting helped from the youth's organization. 『Children』(어린이) might be the media for formation of Kyungnam-Busan region's juvenile literature between 1920's and 1930's without a religious barrier from Catholicism.

『New Boy』(신소년) would be the media that utilized the abundant cultural resources in Kyungnam-Busan region. It started building up the local literature with positive support from local relationship since Lee Joo-hong(이주홍) took part in editing in 1929. In addition, active contributions and

widely spread branch offices increased the relative importance of juvenile literature in Kyungnam-Busan region. 『New Boy』(신소년), across the country, played a crucial role in development of juvenile literature in this region.

『Starland』(별나라) is characterized by entering of the proletarian writers into the media and their activities. Started by Um Heung-sub(엄홍섭), those writers were Kim Byoung-ho(김병호), Son Poong-san(손풍산), Lee Goo-wol(이구월), and Yang Woo-jeong(양우정). It was noted that they had a tendency of exclusivism due to the local and ideological differences. There was not found the whole picture of any activity of youth's organization. However, 『Starland』(별나라) contained traces of the systematic and active media's struggling arised by the writers in Kyungnam-Busan region against the oppression and strain that proletarian juvenile literature might have underwent during that period.

『Boy's Life』(아이생활) had been consistently pressed for the longest time. However, it had less participation of the existing and young writers of juvenile literature. It was a Christian megazine backgrounded by Kyungkido and Pyungannodo, and had weak support by the local Christian group. Moreover, the entry into the media was highly obstructed. These facts resulted the exclusive development of the writers in the local Christian group. Therefore, 『Boy's Life』(아이생활) showed the declined activity in Kyungnam-Busan region juvenile literature due to the religious and territorial barriers.

Each four media above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juvenile literature in Kyungnam-Busan region. Overall, the generational connection among writers was rare, but young contributors constantly grew as the main writers of juvenile literature, experiencing solidarity inside and outside of the area. The entry barriers between each medium is distinctive, that is, 『Starland』(별나라) and 『Boy's Life』(아이생활) place at each end and

『New Boy』(신소년) and 『Children』(어린이) locate between them.

In this shape, Kyungnam - Busan writers of juvenile literature supported modern literature from the bottom, started from Lee Yoon-jae(이윤재), Yang Bong-geun(양봉근), and then Kweon Hwan(권환), Tak Sang-soo(탁상수) to Kang Lo-hyang(강로향), Nam Dae-woo(남대우). While completing this writing, undiscovered literary works, initially presented works, and maiden works of critical local writers as well as studies of popular artists were found out, which were productions of Lee Keuk-lo(이극로), Choi Hyun-bae(최현배), Yang Darl-suk(양달석), and Yeom Joo-young(염주용). Further study is required to investigate Kyungnam-Busan juvenile literature not only in general literary magazines, other periodicals, and separate volumes, but also in newspapers and magazines written by Japanese.

Key Words : Children, New Boy, Starland, Boy's Life, Regional Literature, Juvenile Literature, Kyungnam-Busan Regional Literature, Um Heung-Sub, Lee Joo-Hong